

雲門

불지 2563년

겨울호

통권 제151호

雲門寺僧伽大學



구름문을 펼치다

- ☯ 운문사에서 맞는 마지막 계절. 되돌아보니 감사함만 가득합니다. / 대교과 도림
- ☯ 방황과 혼란 속에 어느덧 계절 혼자 흘러, 운문사를 떠나가게 하네요. 아쉬움은 그리움으로 남겠지요. / 대교과 정안
- ☯ 한 해의 매듭을 짓고, 새로운 시작을 잉태한 계절. 긍정의 시간으로 마무리하기를……. / 사교과 승혜
- ☯ 은행나무가 잎을 떨궈내듯 우리들의 번뇌 또한 떨어져 나가기를……. / 사교과 동심
- ☯ 코 끝 찡한 추위, 정수리의 시린 기운에 정신 바짝 차려봅니다. / 사교과 지엄
- ☯ 반짝반짝 하늘을 뒤덮은 수많은 별들이 신심을 돌우는 겨울입니다. / 사집과 범견
- ☯ 무릎이 얼음장 같더라도 불을 그리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이 겨울도 정진! 정진! / 사집과 진욱
- ☯ 계절 따라 마음의 눈이 부시는 운문사, 이곳에서 부처님께 예경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 사집과 해광
- ☯ 모든 입문은 낡은 것을 버리고, 마음을 더 큰 세계로 열거할 것을 요구하는 시험을 겪게 한다. / 사미니과 정연
- ☯ 누비를 입고 뛰어보자 팔짝. 머리가 북대암까지 닿겠네~ / 사미니과 무공
- ☯ 익은 것이 저물어가는 모습 또한 경이롭다. 자연은 참 경이롭다. / 사미니과 성륜

雲門

목차

02 호거산 운문사	구름문을 펼쳐다
04 죽림헌	'육교여선자교敎餘先自敎'의 인재불사 명성
06 교수논단	향기를 통해 본 화랑 1 영덕
10 수행, 그 속에 깃든 행복	구순 축하 동영상 메시지 원묘
12 인도순례여행	화엄반, 우리는 다시 출가한다 선주
16 학인논단	나라별로 살펴본 비구니 승가의 모습 선아
21 선지식 탐방	활발발한 선을 찾아 송광사를 가다 - 송광사 방장 현봉 큰스님 동심
26 자유기고 1	죽음 앞에서 한 걸음 더 혜광
28 외부기고	'나'를 돌보는 한 끼 혜범
33 想	청풍로 무득
34 특별한 동행	명성 회주스님 구순 및 봉정식을 축하드립니다 편집부
36 운문, 운문인	오백전 백일기도 회향 그리고 일심동체一心冬體 편집부
38 수행의 두레박 하나	습첩을 바꾼다는 것 자우
40 수행의 두레박 둘	운문+er로 산다는 것에 대하여 진정
42 자유기고 2	이별에 임한 갈무리 설민
44 차례법문	소·확·행의 길 자운
46 이 한 권의 책	아비달마의 공간을 두드리다 성빈
48 운문논평	키보드 워리어(Keyboard Warrior) 편집부
50 운문소식	
51 등불	운문사 관음전 주련 편집부



‘욕교여선자교欲敎餘先自敎’의 인재불사

명성 / 운문사 회주



‘즉사이진卽事而眞’ ‘매사에 항상 진실하게 대하라’ 는 뜻으로 『법화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작은 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결코 큰일을 이루지 못 합니다. 일통일체통一通一切通이라고 작은 일에 소홀함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큰일에 대해서도 소홀함이 없을 것이고, 일 잘하는 사람은 공부도 잘하고 수행도 잘합니다. 수처작주隨處作主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저는 올해 구순을 맞아 지금까지 논문과 저술을 모아 20권 두 질로 문집을 편찬하여 발간하였는데 제가 한 페이지 한 줄, 삽표 하나라도 교정을 보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 가운데 제가 번역한 『아비달마순정리론』 I, II를 교정보는데 299시간이 걸렸고 저의 불교학 논문집 I, II를 교정보는데 144시간이 걸리는 등 많게는 하루 9시간씩 1년 가까이 총 817시간 30분을 보았습니다.

학인스님들은 저를 0.1mm라고 합니다. 해야 할 일에 있어서는 한 치 오차도 없이 곧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하고, 또 그렇게 하기를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바로 ‘육교여선자교敎餘先自敎’ ‘타인을 가르치고자 한다면 나부터 가르치라’ 는 것을 뜻합니다. 평범한 스승은 말을 하고, 좋은 스승은 설명을 하며, 훌륭한 스승은 모범을 보이고, 위대한 스승은 감화를 줍니다.

『맹자孟子』 「진심편盡心篇」에는 군자가 즐거워하는 세 가지 일 ‘군자삼락君子三樂’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모두 살아 계시고 형제들이 무고한 것이 첫째 즐거움이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고, 사람들을 굽어보아 부끄럽지 않은 것이 두 번째 즐거움이며, 천하의 영재를 얻어 가르치는 것이 세 번째 즐거움이다.(부모구존 형제무고 일락야 父母俱存 兄弟無故 一樂也. 앙불괴어천 부부작어인 이락야 仰不愧於天 俯不怍於人 二樂也. 득천하영재 이교육지 삼락야 得天下英才 而敎育之 三樂也)

교육불사, 인재불사의 중요성을 볼 수 있는 글입니다. 저는 평소 인재불사를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게 여겨 장학기금을 만들었습니다. 법계장학금은 2003년 화갑을 기념하는 서예전의 수익금과 사재私財를 보시해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총 117명에게 장학금(1인당 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법륜비구니 장학금은 2006년 서예전시회를 통해 마련하였는데 지금까지 매년 6~7명의 비구니 스님들에게 장학금(1인당 5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법계문학상을 제정하여 매년 상금, 책 발간비, 운영비 등 5천만 원씩 지금까지 4회에 걸쳐 지급하였습니다.

‘십년수목 백년수인十年樹木 百年樹人’ ‘10년을 기하기 위해서는 나무를 심고, 또 100년을 기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기른다.’ 고 했습니다. 인재 양성은 불교의 미래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가 걸린 일로 미래를 내다보고 인재를 키워야 합니다.

불교미래를 위해 인재불사에 동참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시작해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

향가를 통해 본 화랑 - 화랑정신의 본질과 시대적 의미 - ①

영덕 / 운문사승가대학 교수

목 차

1. 들어가며
2. 鄉歌 속의 화랑
3. 아름다운 인격, 화랑 三善行
4. 화랑정신의 본질
5. 화랑정신의 시대적 의미
6. 나가며

【참고문헌】

주제어 : 화랑도, 鄉歌, 三善行, 圓光, 世俗五戒, 大乘菩薩道

요약문 : 우리나라 고유의 종교와 문화적 결정체는 전통적으로 風流道라고 할 수 있다. 풍류도를 국가정신의 바탕으로 삼았기에 신라는 삼국을 통일하여 천년 사직을 이어올 수 있었다. 지금 지구촌은 주체적 세계화를 위하여 나라마다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의 근원적 철학인 풍류와 화랑도 정신을 돌아보는 일은 당연한 자세라고 생각한다. 신라정신의 중추이며 삼국통일의 지도이념인 화랑의 세속오계는 시대적 선각

자 원광을 통해 신라시대 화랑들의 삶의 이상과 방향을 제시하는 계목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의 교육 철학과 지도자적 역량을 확장시키는데 필요한 가치와 덕목을 제공해준다. 본고에서는 몇 수의 鄉歌와 三善行을 통하여 화랑이 이미 갖추고 있었던 진선미의 심덕을 드러내 보이고자 한다. 천릿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하는 登高自卑의 자세로 화랑정신의 본질과 이 시대에 던지는 의미를 가볍게 시작한다.

1. 들어가며

화랑정신의 본질과 시대적 의미에 관하여 많은 담론이 형성되어 왔다. 여러 각도에서 조망할 수 있는 '화랑'이라는 콘셉트 중 본고에서 선택한 소재는 향가 속의 화랑이다. 향가를 전면에 내세워서 화랑을 얘기하려고 한 이유는 시대적으로 앞서간 그들의 정신에는 어떠한 미덕들이 본질적으로 작용하고 있는가에 관한 의문과 함께 당시와 현대의 시간적 간극을 어떻게 매울 수 있을가에 관한 호기심도 한몫했다. 화랑정신의 미덕을 현대교육의 목표인 眞善美를 갖춘 미래형 인간학에 맞추어 먼저 인간 내면의 정화된 노래인 향가 몇 수로 화랑의 美의식을 살펴보고, 道義를 바탕으로 한 三善行을 통해 대입하고, 끝으로 世俗五戒의 실천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전인격으로 나아가며 大乘菩薩道の 자리리타적 삶을 구현하는 것을 眞에 배대하였다. 한 손가락의 맛으로 전체를 아우르는 입장에서 전개하고자 한다.

2. 鄉歌 속의 화랑

인간 내면의 정화된 노래, 화랑의 감수성을 고찰할 때 가장 적절한 대상이 향가가 아닐까 한다. 꽤 오래전 梁濂奎는 협의적 의미에서의 향가를 다 음과 같이 규정한 바 있다. '風雅頌을 겸한 신라의

國風으로 우리나라 最高古典文學의 핵심으로, 그 수사는 명랑하고 신비롭고 순진하고 원용하고 평화로우며 그 형태는 길지도 짧지도 않고 지루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으며 우아하면서도 탄력성 있는 문학'이라는 것이다.¹⁾ 명랑하고 신비롭고 순진하고 원용하고 평화롭다는 수사와 우아하면서도 탄력성 있다는 형태의 향가. 이러한 향가의 속성이야말로 화랑의 모습과 직결되는 듯하다.

그러나 이것이 화랑과 향가를 온전히 설명할 수 있을까. 협의적 의미라는 전제에도 이미 깔려 있지만 상당한 기간 이 땅을 구가했던 시가 문학의 내면과 외연을 한눈에 파악하기란 어렵다. 그렇다면 여기서 익히 알려진 몇 편의 향가를 살펴보면, 그것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며 어떻게 외형을 구축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향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인품과 덕망을 그리워하는 노래, 두 번째는 드높은 인격과 이상이나 화랑으로서의 지조를 찬탄하는 노래, 세 번째는 신비한 진언이나 부적으로 천지나 귀신을 감동시키는 노래이다.

먼저 사모의 정을 노래한 『慕竹旨郎歌』는 다음과 같다.

간 봄 그리매(慕) 모든 것이 시름이라
아름다운 모습에 주름살 지시니
눈 돌이킬 사이에 만나보게 하소서
낭郎이여, 그리운 마음의 가을 길
북망산(蓬巷)에 잘 밤(宿夜)은 있으리.²⁾

이 작품은 孝昭王 때(692~702)의 낭도 '득오곡'이 화랑 '죽지랑'을 사모하여 지은 노래이다. 『三國

遺事』에 따르면, 죽지랑은 述宗公의 아들로 김유신과 더불어 副師가 되어 삼국통일을 이룩하는 데 공을 세운 名將으로 眞德, 太宗, 文武, 神文으로 이어지는 4代王에 걸쳐 宰相을 지냈다고 한다. 향가 연구가들에 의해 사모의 정을 노래한 서정적인 신라 가요 가운데 수작으로 꼽히는 이 시는, 그 외형적 수려함뿐만 아니라 내적 정서의 관점에서도 따뜻한 인간애와 진정성을 담지하고 있기에 상당한 시간적 격차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의 심금을 울린다.

무엇보다 이 시에서는 화랑과 낭도라는 상하 수직 관계를 넘어서는 애뜻한 정이 느껴진다. 그 정은 상관이었던 죽지랑의 평소 인품과 덕망에서 기인하겠으나 부하인 득오가 가진 심리적 근간 또한 흔히 말하는 충성심이란 말로는 환원할 수 없는 어떤 것을 내포하기에 특별하다. 창작 동기와 배경에 관한 견해 중에는 이 노래를 죽지랑의 사후 追悼歌, 혹은 輓歌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으나³⁾,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핵심은 조금 다른 지점에 있다. 그것은 '죽지랑이여! 그리운 마음 찾아가는 그 길이 죽어가 문힐 북망산 쭉구덩이 거친 길(蓬巷)일지라도 그곳에서 모시고 함께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에서 드러나듯, 일반적으로는 쉽게 관측할 수 없는 화랑 조직의 독특한 정서가 보인다. 이러한 정서는 구성원인 화랑과 낭도 간의 강한 유대감에서 비롯되며 다시 작품에 몰입하도록 하는 흡인력으로 작동한다.

향가 역시 시가의 영역에 있으므로 미학의 범주를 벗어날 수 없겠으나, 우리가 읽어야 할 맥락은 따로 존재한다. 그것을 내적 동질감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말하자면 향가의 시편들은 내면 의식의 공유를 강하게 환기하는 요소가 장착되어 있는데, 향가를 향유했던 화랑에게서도 그것은 어렵지 않게

1) 梁濂奎, 『國文學概說(1959)』

2) 現代語譯은 金雲學이 하였다.

3) 한글학자 金善琪의 견해다.

발견된다. 주지하다시피, 화랑이라는 집단은 신라 사회 전반에 걸쳐 정치 군사 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단체이다.⁴⁾ 이러한 단체가 혹독한 규율과 엄정한 기강만으로 존재했을까. 오히려 그보다는, 혹은 그 이상의 좀더 끈끈한 것에 의해 유지되었다고 보는 편이 맞을 것이다.

유독 향가에 이런 장면들이 자주 삽입된 이유는 화랑 중에 저자가 많았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따라서 둘이 그리는 궤적은 서로 겹치는 빈도가 잦다. 향가는 이미 그 자체로 화랑의 사상 및 활동과 밀접한 장르라는 사실이 많은 연구자에 의해 밝혀졌다. 『삼국유사』에 수록된 14편의 향가 중에서 「혜성가」, 「모죽지랑가」, 「찬기과랑가」 등이 화랑과 연관되어 있으며, 화랑도에 소속되어 있었던 향가 시인 월명과 충담의 작품 4편까지 고려하게 되면 절반이 넘는 수준이다.⁵⁾ 이러한 사실은 향가를 이해하려면 먼저 화랑의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말로 정의될 수 있으며, 역으로 화랑의 사상적 본질을 추구하려면 향가를 살펴보는 일 역시 필수적이라는 점을 상기시킨다.

다음은 높은 기상과 풍류의 정신이 나타난 노래로景德王 때(742~765) 승려 낭도인 忠談 스님이 화랑 첩자를 찬미한 노래이다.

열치고 나타난 달(月)이 흰 구름 쫓아 어디로 가는가
새파란 냇물에 기과첩자의 모습 잠겼에라
일오천逸鳥川 조약돌이 낭郎이 지닌 마음 가(際)를 쫓지만
아! 잣나무(栢)가지 높아 서리(霜)모를 花郎이여.⁶⁾
‘찬기과랑가’로 알려진 이 작품은 ‘기과’의 드

높은 인격과 이상과 지조를 기리는 내용이다. 시인은 달에게 묻는다. “흰 구름 쫓아 어디로 가는가”. 달의 대답은 이렇게 요약될 것 같다. “구름 쫓아” 서방 정도로 가신 님처럼, “새파란 냇물”에 빠져 있는 “조약돌”처럼, 世俗에 시달려도 변치 않는 기과랑의 마음 끝자락이라도 쫓아가고자 한다. 어쩌면 비약으로 읽힐 수도 있으나, 3~4행으로 이어지는 높은 화랑의 기상과 풍류의 정신을 부인할 수는 없다. 여기서 말하는 풍류란 흔한 예능으로서의 풍류가 아니라 멀고도 가까운 거리에서 드높은 숭고함에 이른다. 더욱이 작품의 지향점이 현실의 세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 너머에까지 관심의 폭을 확장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향가 미학의 특수성을 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도 소홀히 다룰 수 없다. 국문학자 李秉岐는 “신라 진평왕 때 「彗星歌」로부터 고려 광종 때까지 350년간을 계승”하는 향가는, “문학으로보다는 神效한 眞言이나 符籙으로 삼아 신라인들은 하나의 종교처럼 신앙하였다”라고 술회한 바 있으며, 일연 스님은 “신라 사람들이 향가를 숭상함은 오래되었는데, 천지와 귀신을 감동시킨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感動天地鬼神者非一)”라고 하는 향가에 관한 평을 남겼다. 이러한 진술은 당시 사회에서 향가의 영향력이 현대인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이었음을 증명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향가 창작이 어떤 지점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실감하게 한다. 매우 분명하게 신라인들은 향가를 통해 현실 세계의 극복을 염원⁷⁾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三國遺事』 권5의 「兜率歌」를 들 수 있다. 경덕왕 19년(760) 4월 초하루에 하늘에 두 개의 해가 나타나서 10여일간 없어지지 않자, 월명사를 청해 꽃을 뿌리며 향가를 불러 괴변을 없앴다. 이는 국태민안과 인심의 순화를 산화 공덕

4) 신재홍, 「향가의 기억과 서정성」, 『향가의 연구』, 집문당, 2017, pp. 165~166.

5) 신재홍, 「화랑의 순유巡遊와 향가」, 『향가의 연구』, 집문당, 2017, p. 39.

6) 現代語譯은 金雲學이 하였다.

이라는 주술적 측면과 미륵좌주에 의지하여 기원을 노래한 것이다. 그 밖에 주술적 차원에서 향가를 보는 관점에 「도술가」·「서동요」·「혜성가」·「원가怨歌」·「처용가」 등이 呪辭로서의 은유적 원리를 갖춘 노래들이나 글의 맥락상 이상에서 疏略한다.

그렇다면 향가에서 감지되는 화랑과 낭도 사이의 특별한 유대감과 풍류를 통해 이르고자 하는 숭고함, 그리고 천지와 귀신을 감동시킬 만한 종교성은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화랑의 수행 방법과 체계성에서 그것을 찾아보면, ‘노래와 음악을 통해 서로 즐긴다(相悅歌樂)’는 화랑 집단의 風月道는 일정 기간 무예를 연마한 후 음악을 가까이하며 정서와 덕성 등 감성적인 영역을 동시에 육성시키려는 화랑 특유의 교육 프로그램이었다. 그들이 어떻게 내적인 감정과 외적인 감정을 합일시키려 했는지를 조망하기 위해 진흥왕대로 거슬러 올라가 본다.

樂은 모두를 동화시키고 禮는 모두를 차이 나게 한다. 동화한즉 서로 친해지고, 차이가 난즉 서로 공경하게 된다. 樂이 일방적으로 이긴즉 流蕩하게 되고, 禮가 일방적으로 이기면 서로 여의게 된다. 그러므로 ‘내적 감정’과 ‘외적 감정’을 합일되게 하는 것이 禮樂의 일이다.⁸⁾

인용한 『禮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바는, 일찍이 진흥왕은 儒家의 ‘禮樂의 철학’을 터득하여 ‘조화와 질서의 묘합(和序之妙)’을 국민 정서 함양에 도입했다는 사실이다. 풍류도와 관련하여 진흥왕의 치적은 상당하다. 36년간(540~576)의 재위 동안 그

는 불교를 공인한 법흥왕의 뒤를 이어 미약한 국가 체제를 탈피했고, 삼국통일의 역랑과 기초를 화랑도와 佛法을 통해 닦았다. 한마디로 진흥왕은 진정한 민족적 흥성을 확고히 한 강렬한 英主였다.

실제로 진흥왕⁹⁾ 대는 정치 교육 예술 종교 군사 등 다방면에서 성공적인 시기였다. 그의 정책에서 가장 뚜렷한 족적이 될 만한 것이 있다면, 우륵을 중심으로 한 ‘국악의 확장정책’과 함께 설원랑 薛原郎을 최초로 하여 ‘국선도를 개설’하였다는 점이다. 국가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며 인류를 사랑하는 내용을 골자로 道를 통해 교육과 종교를 겸한 大道德을 이룩하려 한 것이니, 이 사상이 바로 신라 문명의 중심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진흥왕의 진보적인 정책은 화랑의 음악적 인생관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었고 이들의 전인적 성품을 도야하는 기틀이 되었다. 모름지기 그 바탕 위에서 풍류정신의 수행이 자연스럽게 터득될 수 있었다.

정리하자면, 미적인 관점에서 화랑을 바라볼 때 기록된 장르로서의 향가를 둘러갈 수는 없다. 세련되고 우아한 형식미를 갖추고 있는 향가는 그 자체로도 이미 탁월한 미학성을 띠고 있지만 내적으로 흐르는 기류 또한 만만치가 않다. 향가는 조직 내부에서 자칫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애트한 사모의 관계로 변모시키며 현실적인 공간을 초월적인 비현실로 전환시키기도 한다. 때로 진언이나 부적과 같은 신묘한 힘을 발휘하는 종교성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특성의 기원은 禮와 樂을 중시하는 풍류도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㉔

7) 향가의 성격은 크게 주술적인 면과 불교적인 면으로 나뉜다. 불교적 측면에서 보면 미륵하생신앙의 대표적인 「兜率歌」와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淨土신앙의 노래인 「願往生歌」, 관세음보살에 대한 신앙을 바탕으로 하는 「禱千手觀音歌」가 있다. 「普賢十願歌」는 민중에 접근하기 쉬운 歌謠의 노래로 화엄사상을 설파한 것이다. 그 밖에도 「祭亡妹歌」는 아미타 신앙의 색채가 짙으며, 「慧星歌」는 밀교사상과 연결되고, 「處容歌」와 「遇賊歌」는 禪敎의 空思想과 관련시켜볼 수 있다.

8) 「禮記」, 「樂記」, 樂者爲同, 禮者爲異. 同則相親, 異則相敬. 樂勝則流, 禮勝則離. 合情飾貌者, 禮樂之事也.

9) 사학자 張道斌는 『朝鮮思想史(1945)』에서 大王의 업적을 7가지로 나열하고 있다. ① 國史編纂 ② 國樂의 擴張 ③ 國仙道の 開設 ④ 國書의 獎勵 ⑤ 國寺의 건축 ⑥ 國祭의 八關會 ⑦ 國土의 開拓

구순 축하 동영상 메시지

원묘 / 운문사승가대학 교수



지난 12월 11일은 50여 년 동안 운문도량을 일구면서 2,100명의 후배를 길러낸 법계당 명자 성자 회주스님의 구순이 되는 날이었다. 이날 아침에는 그동안 저술들을 모은 법계명성전집 봉정식과 법계문학상 시상식이 있었으며 오후에는 운문동문회에서 마련한 구순 잔치가 있었다. 이 자리는 동문회원 700여 명이 동참하는 커다란 행사였다.

회주스님께서 아직 건강하시고 바깥 활동도 원만하시니 우리 제자들은 더없이 복되고 기쁜 일이다.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이 70에도 색동옷을 입고 재롱을 부렸다는 중국 효자 노래자와 같이 우리 동문들도 모두 회주스님을 모시고 재롱도 떨고 노래도 하는 한여름밤의 꿈과 같은 시간을 마련해 보고자 기획을 했다.

그리하여 마련한 것이 옛날의 추억을 모아서 축하 메시지를 영상으로 만드는 것이었는데, 여기에 총 27기수가 동참을 했다. 케케묵어 빛바랜 사진들을 모으기도 하고, 전설의 고향 같은 스토리들을 이야기로 재구성한 영상들이었다. 아마도 장롱 속에 묻어둔 옛날 사진들을 꺼내보며, 옛날 그 시절을 다시보기 했으리라 생각된다. “아! 우리가 그때는 이렇게 었되었네, 회주스님도 이렇게 젊으셨네” 하면서 말이다.

그 영상들의 내용은 대강 다음과 같이 나눌 수가 있다

첫째는 윤력하는 일상의 사진을 가장 많이 담았다. 초기 선배들은 시원하고 푸른 논에서 밀짚모자를 쓰고 모내고 벼 베는 모습, 윤부장은 탈곡기를 돌리고 옆에서는 벼단을 들어주기 바쁜 장면들이다. 그 외는 배추농사, 만세루에 그득하게 널어서 말리는 고추농사, 산더미 같던 김장하기, 메주 만들기 등과 같은

일상이다. 요즘 들어서 들어보지 못한 말 “콩밭 두 번 매면 방학이다”라는 멘트도 있다. 그때는 모든 일들이 다 초보이었을 텐데도, 선배스님들이 다 생활의 달인같이 보인다. 과거를 생각해보니 일하는 모습들이 소꿉놀이같이 느껴지는지, “논농사도 잘해요~~ 배추밭 문제 없어요~~ 김장쫄이야 거뜰~~” 하는 유쾌한 멘트를 달아 놓았다. 그러면서 강원에 처음 입방하여, 가슴에 이름표 붙이고 앞도 제대로 보지 못 하던 애기 동자승들이 점점 자라나서 성숙해지고 의젓해지는 성장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단연코 많이 다루고 있는 주제 중의 하나는, 회주스님의 진행형 숙원사업 도량 가꾸기이다. 도량은 늘 반짝반짝, 논두렁 밭두렁까지 쓸고, 간격과 줄을 맞추어 꽃을 심는 것은 베이직, 돌까지도 아기처럼 목욕을 씻기고 있는 장면도 있다. 어느 기수에는 싸늘한 어느 가을날 회주스님께서 수선화를 심으라고 하셨는데 양이 너무 많아서 몰래 계곡에다 조금 버렸다고 양심선언하는 영상도 있다. 양심고백 참 일찍도 하시네! 20여 년이 지났는데 구순연이 아니었다면 가슴에 묻고 갈 뻔하지 않았는가? 그때는 도량에 꽃을 심고 어른스님들과 함께 그 꽃길을 걸었지만, 지금은 그 꽃들이 우리 마음에 피어서 세상을 빛내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셋째, 재미있는 것은 체육대회이다. 지금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가을이면 체육대회가 있었다. 이럴 때면 구석구석에서 연습을 하느라고, 도량이 분주 산만하고 떠들썩했다. 반 대항 배구시합, 탁구대회, 줄다리기 등이 있었다. 그 장면을 살펴보면, 울력 장갑을 끼고, 목에는 하얀 수건들을 걸끈 동여했으며, 하얀 고무신을 신고 뛰어나갈 준비를 하고 줄지어 기다린다. 기고만장하며, 눈은 고정되어 있다. 지금 봐도 그때 시합들이 얼마나 기운찬지, 주문을 걸면 사진 속의 인물들이 갑자기 튀어 올라 다시 “와야 영차 당겨라” 응원하며 “농업반 이겨라, 화엄반 이겨라”를 외칠 것만 같다. 시합 후 무슨 경품을 받았는지 상쾌한 미소가 입가에 번진다. 이러한 시합들이 사라져서 학인들 사이에 활력이 사라진 것 같다.

마지막으로 동문들이 가장 많이 기억하는 회주스님의 교훈은 즉사이진이며, 집중하여 붓글씨를 쓰시는 모습이다. 많은 영상들이 이 문구와 사진을 머리말이나 꼬리말로 사용하고 있다. 졸업 후에도 가끔씩 마음이 흔들릴 때 회주스님의 태산 같은 모습과 허황된 욕심을 버리고 매사에 진실하라는 교훈을 가슴 깊이 새겨본다는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동문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추억의 시간을 다시보기 해보았다.

운문 동문은 회주스님을 중심으로 인드라 그물 같은 시간과 공간의 인연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과거란 잠시 숨어 있는 현재이다. 따라서 중상연만 구축된다면 언제든지 확장세계를 펼친다. 우리! 이러한 인연이 어찌 이번 생이기만 하겠는가?

회주스님! 인생은 90부우~~터~~ 



바이샬리 대립정사



화엄반, 우리는 다시 출가한다

선주 / 대교과



보드가야 마하보디 사원

여행은 해보았으나 ‘순례’라는 명사가 덧붙여진 여행은 처음이다.

먼저, 이 시작에 동참한 분들을 올려드리고 순례 이야기를 적고 싶다. 순례의 준비에서부터 끝까지 함께 하신 회주스님 이하 대중스님들과 사부대중, 그리고 우리의 순례 인솔자 원법 교수스님, 화엄반 도림, 성경, 우연, 지형, 선주, 동암, 석인, 선경, 법인, 도현, 원덕, 유심, 지선, 향광, 정안, 진오, 무여, 도현, 로운, 서림, 자운 스님. 이 모든 분들이 이 이야기를 만들어내었다.

‘부처님 성지 순례’ 떠나기 전 어른스님들께서 누누이 인도 가기 전에 부처님 성지에서 큰 원을 세우고 오겠노라고 기도를 하라는 당부 말씀을 듣고부터는 하늘 뭉게구름 속에 떠돌던 마음이 쭉쭉 내려앉았다. 그리고 여행 준비 항목에 ‘화엄반 졸업 여행 신중기도’ 2박 3일이라는 필수 준비가 있었다.

‘순례’라는 것은 그냥 돈 내고 가방 챙겨서 떠나 구경하고 사진 찍고 맛있는 것 먹고 하는 국내 사찰 순례나 해외여행과는 다른 시작이었다.

이러한 마음의 준비가 있었으나, 여행 가방에 준비물을 챙기기 시작하면서 ‘여행모드’로 아주 쉽게 전환되었다.

부처님의 출가를 떠올리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태자의 안위를 버리셨고, 그분께서 성도 열반하신 인도로 떠나는 나는 ‘버리기’보다 ‘갖추기’를 하고 있었다.

비행기를 타고 내린 첫 인도 저녁의 델리공항에서 숙소로 이동 중 가이드의 첫말,

“한국 생각을 100% 머리에서 빼버리세요. ‘인도는 부처님 나라다, 내가 부처님 나라에 와 있다’는 것만을 가지고 이 여행을 함께 해주세요.”

14박 16일의 일정. 2번의 국내선 비행기, 6시간 열차, 그리고 버스. 멀리서 본 인도의 풍경은 초록 들관과 풍성하고 큰 나무들(야자수, 망고나무, 바나나나무 등) 사람 키만한 맨드라미, 봉숭아, 색깔 선명한 꽃들로 편안하고 아름다웠다. 가까이서 보니 쓰레기 무더기들, 소, 개들이 도로에서 휴식하고 맨손으로 소똥을 만지는 여아들과 설새 없이 들려오는 경보음 소리... '아, 나는 지금 부처님 나라에 있다.'라는 주문을 걸었다.

버스를 주차해 놓은 마당에서 짜파티를 만들기 시작하는 운전사 보조 아저씨를 옆에서 지켜보게 되었다. 주차장 바닥에 거무죽죽한 줄무늬 형겼이 있었다. 걸레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을 손으로 집어 프라이팬을 달고 반죽을 밀 나무판도 닦은 후 다시 바닥에 놓고는 짜파티 반죽을 재빠르게 밀대로 둥글게 편 후 프라이팬에 올렸다. 반죽이 부풀어 오르니, 재빠르게 그 줄무늬 형겼으로 눌러서 김을 뾰다. 김이 빠진 짜파티를 두 번 뒤집더니 접시에 옮긴 후 그 형겼을 짜파티에 올렸다. 3개를 만들더니 지켜보던 우리에게 먹어볼 거냐고 물었다.

Yes!!! 맛있다!!!

인도 도로는 자전거, 오토바이, 차, 리샤, 소, 사람들이 함께 다닌다. 리샤를 처음 탔을 때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곳을 꼭 잡고 다리에 힘짜 주고 탔으나, 두 번 이상 타보니 이 많은 차들이 아주 안전하게 운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후, 몸에 힘도 풀고 편하게 주변도 둘러보며 인도 현지화 되어갔다. 더러움과 깨끗함, 질서정연함에 대한 분별이 희석되어 갔다. 더러움에 몸을 사리던 내가 며칠 만에 이러한 것이 편해졌다.

인도에 오면 텔리국립박물관으로 오라.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진 방으로 오라. 운문사 스님들이 성지순례 왔다고 하면 그때 와서 옆자리에 앉아서 들어보라. 그들의 예불 올리는 소리를 들어보라 권하고 싶다. 나조차도 예불에 참석한 사람이지만 예경 염불 소리가 공간으로 퍼지면서 다시 마음을 쩡~하게 울려 감동의 눈물이 났다. 오르간이 있는 성당의 성가대가 부르는 찬송가를 상상해보라. 성지마다 울려 퍼지는 예불소리가 다시 내 귀로 들려올 때 그 소리는 감동적이었다.

열반당 안에서, 마야 부인당 안에서, 아잔타 석굴에서, 엘로라 석굴에서, 마하보디 사원에서, 기원정사에서, 녹야원에서... 많은 성지에서 울려 퍼진 예불소리는 나를 감동시켰고, 주변인과 대지와 하늘, 허공을 감동시켰을 것이다.



룸비니 마야부인당



쿠시나가르 열반당



아잔타 석굴

박물관에서 예불 올린다는 것은 상상해보지 못 했다. 국민 70%가 힌두교이면서 국새는 초전법륜지 녹야원의 아쇼카 석주 맨 위에 있는 4 사자상으로, 인도화폐에도 인쇄되어 있다. 델리국립박물관에 부처님 진신사리 방과 사리 앞에 100명이 설 수 있도록 여유 공간을 둔 배려가 참으로 고마웠다. 부처님의 성지마다 세워진 아쇼카 석주와 대탑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는 어디를 돌아보고 있는지 알 수 없었을 것이다. 암베드카르와 세계의 불교 지식인들이 다시 인도 불교를 세워놓지 않았다면 세계의 불교인들이 이렇게 부처님 성지에 모일 수 있었을까?

부처님의 성지를 찾는 참배객들이 이렇게 예불 드릴 수 있는 배려도 받을 수 있으니 선지식들이 고마웠다.



쉬리바스티, 기원정사



샤르나트 녹야원(초전법륜상)



쿠시나가르 열반당

하루 한곳의 성지에서 인솔자 스님과 우리는 사시마지 예불과 108배, 입정을 했다. 마지용 생미, 다기물, 인도과일, 사탕, 향, 초 등을 차린 후 목탁 시작 소리에 맞추어 한목소리로 “지심귀명례 석가모니불” 한 마음이 되어 내가 부처되기를, 부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했다.

예불 올리는 동안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딘지 잊어버리게 되었다. 우리 옆에서 각처의 순례자가 독송을 하고, 명상을 하고, 그들의 의식을 치르고, 우리를 그들의 카메라에 담는 동안 우리는 부처님과 함께 있었다.

책 「코스모스」의 저자 칼 세이건을 소개한 잡지에 이런 구절이 있었다.

“150억년에 이르는 우주의 시간을 1년으로 압축하면 고대문명부터 현대까지 오는 데 걸린 시간은 10초 미만이다.”

이 논리라면 우리와 부처님은 함께 있는 것이 아닐까?

꽃 공양을 위해 꽃을 들고 있는 우리 도반스님들의 얼굴이 살아 계신 부처님을 친견하러 가는 제자들처럼 생기가 돌고 꽃처럼 아름답게 빛났다. 이렇게 살아 있는 부처님들과 함께 있었다. 부처님의 성지가 아니더라도 똥 위에 자리를 깔고 예불을 드리면 그곳이 범당이고 처처가 범당일 수 있고 예불 드리는 내가 범당이라는 마음에 확신도 들었다.

그러나 예불의 감동과 이 확신에 찼던 마음도 낯선 음식과 환경에 며칠만 지나면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괜찮아’ 하며 스스로를 달래는 자신을 보면서,

‘어떻게 부처님은 왕궁으로 돌아가시지 않으셨을까?’

‘나는 왕족으로 살지 않았는데도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부처님의 깨달음이 어떤 것일까?’ 하

며 이 환경과 사람들을 자비로 보셨을 부처님의 마음을 계속 생각해보았다. 부처님 시대를 상상으로 계속 인도의 환경에 올려보고, 부처님께서 분소의와 맨발로 다니셨을 이 땅들을 나의 맨발로 밟아보아도 나 자신에게 실망스러웠다.

우리가 가져간 경전 발췌집에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고 결식하여 온 음식으로 식사하실 때 본 적조차 없는, 보기 싫은 음식에 괴로워하는 자신을 대면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그때 부처님께서 사문이 되고자 했던 마음을 되새기시면서 스스로에게 훈계하고 조용히 식사하셨다고 한다. 인간 부처님으로 와 닿아 나는 걱정스런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드디어 우리는 마지막 순례지 사르나트 초전법륜지 녹야원에서 회향 예불을 올리고 각자의 느낀 바를 나누었다. 이구동성으로 자신의 신심이 견고하지 않음을 느꼈다고 고개를 떨구었다. 그리고 부처님이 살아 계신 분처럼 인식되어졌고, 가는 곳마다 참회가 절로 되어졌다고 했다.

열반당에서 경을 읽는 스님들, 보드가야 마하보디 사원을 빼곡히 둘러싼 오체투지하는 각국의 스님들, 조용히 한자리에서 하루 종일 명상하는 스님들과 재가자들, 성도지마다 있었던 많은 재가자분들, 열차 안에서 만난 땀에 마른 인도할아버지로부터 (열 좌석에 있던 텔리대학 역사학교수가 몇 번의 대화로 그를 구루¹⁾라고 부름) 간결하고 막히지 않았던 힌두교의 교리 설명, 그리고는 본인은 지금 담마빠다 강의를 듣고 있는데 꼭 들어보라고 몇 번을 우리에게 얘기해주었던 만남들, 입정하고 있던 우리 각자 앞에 현금 공양이 놓였던 순간들로부터, ‘지나온 순간들에 우리는 각자에게 법을 수지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일까?’, ‘이 가사 입고 삭발염의 한 것이 부끄럽지 않을 수행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자신의 신심의 뿌리를 보게 되지는 않았을까?

대한민국 운문사의 금빛 부처님 모셔진 단정하고 아름다운 법당 내에서 예불을 드리고 정갈하고 아름다운 곳에서 머물던 우리가, 낯선 환경과 붉은 벽돌의 훼손된 유적터와 목이 없는 부처님상, 개똥과 쓰레기가 있는 바닥에 넙죽넙죽 가사 입고 절했던 우리 모두는 “너의 신심을 내보여라, 진정 보살심으로 살려는가?”라는 시험을 치렀던 것 같다.

그래, 이제 다시 출가한다. 다시 시작이다.

우리는 등지를 떠나야 하는 새다.

등지를 떠나야 할 시기가 오면 부모새는 새끼새를 등지 밖으로 밀어낸다. 그러면 새끼새는 무서워 숨을 곳을 찾으며 기우뚱, 기우뚱 걷다가 날개를 퍼덕이기 시작하면서 날다가 떨어지기를 반복한다. 부모새는 새끼새의 주변을 맴돌며 바라본다. 드디어 새끼새는 날아오른다.

우리도 날아오를 것이다. 이 새끼새의 과정을 묵묵히 견뎌낸 후.

1) 힌두교, 시크교 및 기타 종교에서 일컫는 스승으로, 자아를 터득한 신성한 교육자를 지칭한다.

나라별로 살펴본 비구니 승가의 모습

선아 / 사교과

어찌 불법佛法에 비구 비구니가 있으며
세간과 출세간이 있겠는가
어찌하여 북北이 있고 남南이 있으며
어찌하여 너와 내가 있을 수 있으리오¹⁾

인도를 지나 전 세계로 전파된 승가의 흐름을 살펴볼 때 나라와 시대마다 비구와 비구니의 시대적 성향의 차이는 비슷하게 나타난다. 비구 승가는 비구니 승가를 보호하고 비구니 승가는 비구 승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다. 이때 여성과 비구니라는 인식의 한계가 발생한다. 이는 사회적 위치의 차이를 보이며 위상의 높낮이를 따져 묻고 더 나아가 비구니 승가의 흥망성쇠興亡盛衰를 좌지우지左之右之하는 힘이 되어 존립의 문제를 다투는 결과를 낳았다. 인도를 시작으로 세상으로 전파된 비구니 승가는 스리랑카를 지나 중국,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일본 등 전 세계에 뻗어나가 각 나라마다의 특색을 띠며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한때 발전했던 비구니 승가는 여러 사회적 또는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운 처지에 처해 오직 비구 승가만이 남은 나라도 많이 있다. 이 글을 통해 각 나라별 비구니 승가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I 인도

인도에서 비구니의 구족계는 세 번에 걸쳐 성립된다. 팔경계에 의한 마하파자파티의 수계, 석가족 여성에 의한 구족계 수계, 그 이후 여성들에 대해서는 이부 승가에 의한 구족계의 수계

1) 본공당本空堂 계명戒明 스님(1907~1965) : 1935년 계승

이다. 이부 승가에 의한 구족계가 정착되면서 식차마나계와 사미니계도 탄생하게 된다. 최초 구족계인 팔경계의 여섯 번째 제육경법은 식차마나니에 대한 내용이다. 하지만 마하파자파티와 함께 출가한 석가족 여성들도 식차마나 기간을 지냈다는 기록은 초기 자료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팔경법과 식차마나와 관련해 이것이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초기의 팔경법이었는가 아니면 후대에 덧붙여 만들어진 것인가에 대해 학자들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초기에는 「계조문」에 의한 형식보다는 삼귀의와 오계 등의 형식으로 구족계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여성도 수행하면 아라한이 될 수 있냐는 질문에 부처님께서 ‘여성도 수행하면 아라한이 될 수 있다’는 대답을 하신다. 하지만 부처님 당시 당당하게 아라한이 되어 깨달음의 노래를 부르던 비구니들의 위상은 시대를 지나며 여성이라는 사회적 한계의 이유로 보호 받아야 하는 대상에 포함되는데 이것은 비구니들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는 한계를 가져온다. 역사적으로 비구니 승가의 가장 큰 보호막은 신도들이었다. 비구니 승가에 의해 온전히 보호받지 못 하는 경우 신도들이 비구니 승가를 보호하는 가장 큰 역할을 수행했다. 하지만 인도에서 비구니의 위상은 점차 쇠약해졌고 비구니 승가에서조차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이로 인해 인도에서의 비구니 승가는 급속도로 약화되며 비구니 승가가 세워진 나라에서 그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게 된다.

II 스리랑카

기원전 3세기 상좌 불교 전통의 인도 비구니들은 스리랑카로 건너간다. 상가미타 비구니가 데바남피야티싸왕(기원전 257~207)²⁾의 초대를 받아 우타라 외 11명 등의 비구니들을 동반하여 보리수를 가지고 건너간 것으로 보고 있다. 상가미타 비구니는 기원전 246년 스리랑카에 불교를 전파한 마힌다 장노의 친누이동생이다. 율장과 경장을 가르치며 정사를 짓고, 왕궁의 여성이었던 아눌라데비를 출가시켜 가르침을 전했다.

연대기에 의하면 초기 비구니 승가의 변화과정에서 생긴 일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수세기 동안 왕들에 의해 보호받고, 귀족 여인들의 보시를 받았다고 전해진다.

중국 문헌에 의하면 데바사라는 스리랑카 비구니가 중국으로 건너가 436년에 비구니 승가를 설립했다고 전해진다. 스리랑카에 비구니 승가가 10세기까지 존재했다는 것을 비문들을 통해 알 수 있다. 다만, 비구 승가는 비구니 승가가 없더라도 존재할 수 있었지만 팔경계에 따라 비구니 승가는 반드시 비구 승가에 종속되어야 했으며, 비구 승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전쟁, 가뭄 등의 경우에 비구 승가를 접할 수 없게 되면서 비구니 승가는 구족계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처해 사라지는 일이 발생한다.

2) 대사大史, 제18,923. ; 선견율비바사 제1권, p. 92.

10세기 말에 스리랑카는 방어력을 잃고 국력이 매우 약해져 있었다. 1041년경 남인도로부터 온 콜라인들에게 패배를 당하고 불교 건축물이 파괴당하게 된다. 이때 비구 승가와 비구니 승가가 사라지게 된다. 스리상가보디위자야바후(1056~1111년) 키티왕자에 의해 나라가 해방되며 비구 승가의 복원을 위해 미얀마 남쪽에 있는 스리랑카 비구들을 모셔왔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파라크라마바후 1세와 같이 비구 승가의 복원을 위해 많은 일을 했던 왕조차도 비구니 승가를 복원하지 않았으며 복원할 방법이 없는 상태이기도 했다. 왜냐하면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등 상좌 불교를 가진 이웃 나라에 이미 비구니 승가가 사라졌기 때문이었다.

계율, 율장 조문에 의거하여 비구들은 비구니 승가가 없는 상태에서는 여성들에게 사미니 제나 비구니 구족계를 줄 수 없다. 비구니 구족계의 득도에는 최소 10명의 비구니가 필요한데 비구니 승가의 소멸은 식차마나에게 구족계를 주기 위한 수계갈마受戒羯磨가 불가능했음을 의미한다.

스리랑카에서 비구니 교단을 만드는 일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은 홍콩, 대만 등에서 도움을 받아 비구니 승가를 일으킨다고 해도 그것은 '사자전승師者轉承이 끊어진 채 계승'된 비구니 승가라는 인식의 한계 때문이다. 상좌불교에서는 이렇게 이어지고 계승된 비구니 승가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며 이것이 전 세계에 비구니 승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리랑카에 비구니 승가가 세워지지 못하는 이유이다..

III 중국

5세기 초 4부율이 중국에 전해진다. 4부율이 전해지기 전부터 비구, 비구니는 존재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 시대 비구와 비구니는 계율이나 갈마본 등이 전해졌다 해도 그것을 존중하거나 실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당나라 초 범림法琳이 저술한 『변정론辯正論』 권3에 의하면 서진시대 낙양과 장안에는 사찰이 180개, 승니 3,700명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하지만 계율과 갈마본 등이 존중되지 않은 불교는 불교의 참뜻을 실천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는 없었다. 이에 석도안은 장안에 머물면서 서역사문과 교류하였으며 계율 번역에 참석하여 계율의 존중과 전파에 힘쓴다. 당시 중국의 상황에서 계율의 내용과 갈마본 등이 전해졌다고 해도 율의 내용과 인도의 사정을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이며 그로 인해 계율에 대한 존중이 크게 일어나지 않은 상태였다. 당시의 재가불자 또한 오게나 팔제계를 엄격하게 지키지 않고 있었다. 석도안과 그의 친구 축법태의 계율의식에 대한 연구를 통해 비구니계율과 관련한 저술과 번역이 이루어지며 중국 내에는 체계를 갖춘 비구니 승단이 세워지게 된다.

비구니의 자격을 갖추게 되는 구족계 갈마 등이 중국에 전래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경과한 가장 큰 이유는 교통의 문제였다. 중국 비구니의 수계과정은 최초의 비구니 정검니미에 대하여 기록한 『비구니전』 제 1권에 그 내용이 등장한다. 이 수계는 적법한 수계는 아니었으며 72년 뒤 스리랑카 비구니에 의해 433년 『사분율』에 따른 이부 승가의 구족계가 이루어졌다. 현재 중국 비구니 교단은 『사분율』에 의한 구족계 수계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중국에서 불교의 탄압과 관련해 불교의 위상은 위축되었고 비구 승가와 비구니 승가는 일시적으로 사라지는 형태를 보였지만 현재는 국가적 지원을 통해 승가를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성성분리라는 유가적 문화는 비구와 비구니라는 자연스러운 분리를 가져왔으며 중국 비구니들이 비구 승가에 지배 및 복속되는 일이 차단되면서 비구니의 영역이 정치에 상당한 권력을 가졌다는 특징이 있다. 이로 인해 학문에 뛰어난 재능을 보여 그 재능을 다양한 분야에 사용하기도 하고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원을 감독하는 등 중국 비구니 승가는 위상을 높이며 지냈다.

IV 한국

한국 최초 비구니 승단에 대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지만 일본에 남아 있는 기록에 의해 고구려, 백제에 비구니 교단이 존재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비구니에 대한 기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비구니 승가가 언제 구체적으로 확립되었는가는 알 수 없지만 한국불교 내 비구니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신라에 불교를 전한 아도 화상을 은거시킨 모례의 누이 사씨가 출가한 기록이 나온다. 하지만 정식 구족계를 받은 것은 아니었으며 국가적으로 불교를 공식 인정한 시기로는 볼 수 없다. 정식으로 구족계를 받았다고 기록된 여성은 고려 말 출가하여 10명의 계사들 앞에서 정식으로 수계를 받은 성효라는 비구니이다.

신라시대까지 니승이 집단으로 거주하거나 함께 구족계 등을 수계한 정확한 흔적을 찾기는 어렵지만 『사분율』에 의한 전통 수계를 전래받은 한국의 비구니 교단이 일본 비구니의 탄생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일본 사료에 기록되어 있다.

위덕왕 24년(577) 일본에 율사 등과 함께 비구니를 파견하였다는 기록으로 보아 백제에 비구니 교단이 구성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 들어 비구니 승가는 유교 및 가부장제도에 따른 여성의 인권이 존중되지 않은 상태로 침묵으로 머물렀다. 이 시기에는 비구 승가 또한 천민이나 노비의 신분과 같은 위치에서 불교가 국가적 탄압을 받는 시기였으므로 불교의 위상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이조실록』에 나타난 자료에 따르면 1404년 여성들의 사원 출입을 금지한 칙령이 나온다. 1413년 인륜을 바로잡기 위해 출가 승려였던 양가집 처녀들을 환속시켜 결혼하도록 명령하거나 1428년 여성들의 연등회 참여가 금지되는 등 남성들과 접촉이 금지된 상태로 제도적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1451년 사원을 방문하는 여성에 대한 고문, 1487년 비구와 비구니의 도성 출입 금지 등으로 비구니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러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한국 불교에서 비구니는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었으며 현재 전 세계에서 대만과 함께 비구니의 위상이 가장 높고 또한 평등한 수준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V 다른 여러 나라

티베트 역시 오래전 비구니 승가가 사라졌지만 라마승에 의해 몇몇 여성들이 홍콩에서 비구니 구족계를 받았으며,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 등은 비구 바라제목차의 문헌을 출판할 때마다 비구니 바라제목차를 함께 출판하는 것으로 사라진 비구니 승가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만의 경우 1965년 인순 대사와 증엄 대사가 “비구니들은 팔경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공표하며 비구니 교단이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미얀마, 캄보디아, 태국 등 상좌 불교 국가에서는 여성들이 황토색이나 흰색 복장을 하고 열 가지 계율을 지키며 살아간다. 이들은 비구니라고 하지 않지만 비구니와 같이 수행하고 있다. 다사실마타보(열 가지 계율을 지키는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다.

VI 맺음말

이 글을 준비하며 시대의 흐름을 타고 세상에 전파된 비구니 승가가 어떻게 자리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 수 있었다. 다양한 논문을 통해 사라진 비구니 승가의 모습을 살피는 일은 현존하는 비구니 승가에게는 물론 나에게도 좋은 지침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진공묘유眞空妙有의 찰나 찰나에 집중되어야 하는 수행의 ‘지금 이 순간’을 놓고 보면 이름은 다만 그에 지나지 않을 뿐이며, 어디까지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 헛갈릴 뿐이다.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알고 싶다면 우리는 뒤를 돌아보면 된다. 이미 지나온 길 위에 승패는 판가름나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선택하면 되고, 그에 따르는 책임을 당당히 지고 살아간다면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는 올곧은 심지가 되어 그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을 바른 확립이 되어 줄 것이다. 🍃

【참고문헌】

- 『동아시아의 불교 전통에서 본 한국 비구니의 수행과 삶』,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2004
- 모한 위자야라트나 지음, 온영철 옮김 · 釋智觀 교열,
『비구니 승가: 비구니 승가의 탄생과 변화』 대한불교조계종교육원, 1998
- 민병숙(벽공), 「동아시아 비구니계율 전래와 수계의 변천」, 『불교연구』, 한국불교연구원,
2014

활발발한 선을 찾아 송광사를 가다

— 송광사 방장 현봉 큰스님

동심 / 사교과



방장스님께서 저술하신 책들

새벽 일찍 송광사로 가는 길은 선지식을 뵈는다는 설레는 마음이 앞섰습니다. 승보사찰인 송광사에 들어서며 수많은 부도탑을 마주하니 환희심이 절로 일어났으며, 승보전의 천이백아라한님은 운문사의 오백나한님들을 떠올리게 하여, 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약속시간이 되어 시자스님을 따라 들어선 방장스님의 상사당 上舍堂은 간결함이 돋보였습니다.

스님께서는 결제 중에 참선 대중과 함께 하고 계시는데, 점심공양 후 잠시 잠을 내어 저희들을 따스하게 맞아주셨습니다.

● **방장스님** : 편안히 앉으시오. 모두 무슨 반이오? 운문사 학인들은 다 몇 분이나 됩니까?

♣ **학인** : 사교반입니다. 그리고 학인들은 총 87명입니다.

● **방장스님** : 옛날에는 200명 이상이 살던데 절집에 스님들 숫자가 지꾸 줄어들어 걱정이네요. 시스템을 좀 바꿔서 단기 출가를 한다든지, 은퇴출가 같은 것을 활성화시키면 좋을 텐데... 그래, 뭐가 궁금해요?



송광사 신문에 들어서다



수 많은 부도탑, 이곳이 바로 송보僧寶 사찰임을 여실히 증명한다

♣ **학인** : 방장스님, 송광사의 선농일치처럼 운문사도 예전처럼 큰 규모는 아니지만,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노동으로 수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컴퓨터나 자신의 전공을 살려 수행을 하는 것도 괜찮은지 여쭙고 싶습니다.

● **방장스님** : 백장청규에서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농경 사회일 때는 스님들이 농사짓고 살았지만, 현대는 농사만이 아니라, 각자의 장기를 살려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은 컴퓨터로, 집을 잘 짓는 사람은 집을 지으며 수행할 수도 있는 거지요.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 해민 스님이 새로운 명상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구글 대상을 받았더라고요. 그런 것도 큰 일입니다.

♣ **학인** : 소임을 살다보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간혹 지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반조해야 할까요?

● **방장스님** : 개성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살다보면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운문사 회주스님은 ‘나쁜 사람은 없다’는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 많은 대중을 감화하셨더군요. 『금강경』에도 내가 괴롭힘을 당할 때 그 일로 선세죄업이 녹아짐을 반조하며 감사히 받아들이라고 했어요. 반조란 것은 일체유위법이 실체가 없는 줄을 잘 살피는 것입니다.

♣ **학인** : 스님, 화두가 무엇입니까?

● **방장스님** : 화두, 화두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指頭)으로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깨달은 경지를 말이나 글로써 표현할 수 없기에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어떻게 전해야 할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다섯 비구들에게 설명을 한 것이 사성제 팔정도잖아요. 그때 그 법문을 듣고 다섯 명이 다 아라한이 되었어요. 그런데 사성제 팔정도를 주제로 논문을 쓴 석·박사들도 많이 있지만 과연 그들이 아라한이 된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부처님의 메시지나

그 내용, 진정한 화두를 알까요?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너뛰는 것이 아니라 그 뗏목에 매달려 모양이나 재료나 질량 부력 등이나 살피고 있는 실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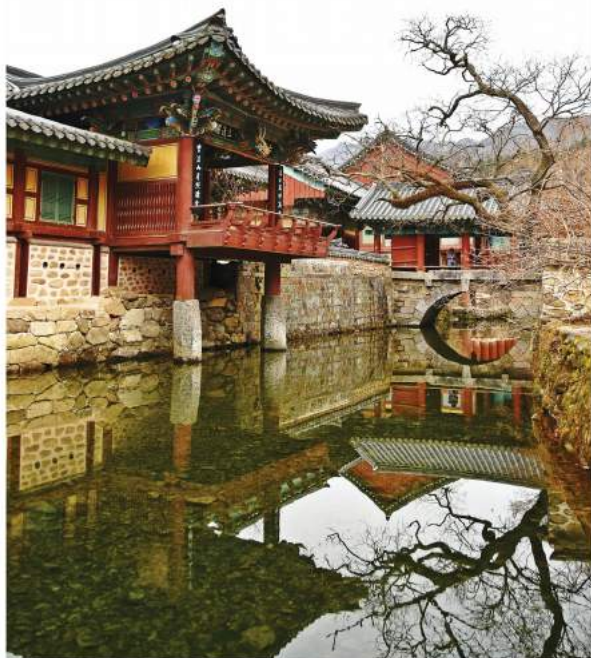
부처님 설화집이 경전이잖아요? 다섯 비구는 사성제 법문을 듣고 아라한이 되었고 육조 스님은 금강경의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탁 들고 깨달았는데, 나는 말씀의 진정한 뜻 즉 화두를 몰라 답답해서 살피는 것이 간화선입니다. 그 설화의 진정한 뜻을 알려고 우리는 개경개經偈를 외우면서 원해여래진실의願解如來眞實義라, 부처님의 진실한 그 뜻을 알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간경이나 화두 참구예요. 그리고 부처님 경전이 하도 방대하니까 인도에서 오신 조사께서 불법의 에센스를 아주 압축해서 가르쳐 준 것이 조사적적의祖師的的意 아닙니까? 그것을 정리한 것이 공안公案입니다. 화두는 경전이나 어록을 보며 자기 자신을 반조하다가 큰 속제로 남을 때, 진정한 의심이 생기는 거지요.

♣ **학인:** 그러면 꼭 큰스님께 화두를 타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일어나는 개인의 의심을 가지고 화두로 삼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방장스님:** 제일 좋기는 강원에서 학인들이 경전을 보면서 제 안에서 스스로 의심이 우러났을 때, 스승이 거기에서 조금 더 의심을 강하게 해 주거나 아니면 바로 답을 쥐서 줄탁궤(줄탁되게) 해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더 의심이 날 수 있도록 자꾸 몰아 붙여서 발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면 더 좋겠지요. 소위 학문學問이란 것은 글자 그대로 의심하고 묻는 문제의식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걸 본래 나한테 갖춰져 있기 때문에, 나한테 있는 것을 찾는 것이니 아무리 밖을 헤매도 안 되는 거예요.

화두도 살아 있는 현실 속에서 활발하게 꽃이 피어야 그것이 진짜지 안 그래요? 예로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면서 모니터에 뜨는 화면의 그림자에 자꾸 빠져들고 있잖아요. 텔레비전을 보는 것





한 폭의 그림 같은 송광사 풍경

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보면서 ‘이렇게 볼 줄 아는 이것이 무엇이나?’ 바로 반조할 수 있어야겠지요. 그리고 시대의 공통화두도 있습니다.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께서는 한국비구니교육을 평생 화두 삼아 불교사에 큰 획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화두나 공안의 깨달음이 자기 삶에 큰 변혁이나, 이웃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현실에 맞게 새롭게 표현하면서 살아 있어야 해요. 그래야 그 화두가 이 시대의 정말 살아 있는 화두라고 말할 수 있어요.

혹시 제주에서 열린 구스타프 클림트 작품을 본 적 있어요? 나는 일부러 두 번이나 가서 보았어요. 우리가 거기

다가 ‘사이버 수트라’인 화엄경을 대입을 시켜 본다면, 그 많은 중중무진의 화장세계들이 겹겹의 문을 지날 때마다 짹~ 펼쳐지면서 다른 천백억세계의 부처님세계가 펼쳐지고, 또 그 부처님 앉아 계신 꽃잎마다 또 그런 세계가 중중으로 펼쳐지는 가운데 팔만대장경이 오버랩 되고 장엄한 범종 소리 범고소리 운문사의 예불소리와 독경과 만트라가 울리다가 죽비소리에 고요한 적정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하는 그런 것을 한번 연출해 봐요.

아잔타, 엘로라, 돈황의 막고굴, 미얀마 바간의 탑과들, 보로부두르의 대탑들 얼마나 멋지고 장엄합니까? 그런 훌륭한 불교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영상이나 소리들을 연출하면서 일반인들에게 이미 2600년 전에 설하신 부처님 이론을 쉽게 설명해 주면 훨씬 쉽게 다가갈 겁니다. 미래 시대는 그런 문화를 그렇게 끌어가야 된다고 봐요.

예전에는 스님들이 첨단 문화를 이끌어 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스님들이 먼저 자기 수행의 내공을 깊이 쌓아 생활 속에서 공사상과 연기 이론을 잘 대비시키고 절묘하게 조화시키면서 인류의 삶과 더불어 지구 환경 문제나 천체물리학이나 생명공학 인공지능 원리 등등의 해답이 불교 안에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 **학인** : 수행 점검을 받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방장스님** : 옛날에 송광사 구산 큰스님께서는 보름마다 대중들을 하나하나 불러 ‘화두를 어떻게 드는지?’ ‘화두는 이렇게~ 들어라.’ 라고 점검해 주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아쉽게도 요즘 그렇

게 점검해 주시는 분들도 별로 없고, 남자들도 어록을 보면서 스스로 점검하는 그런 풍조라서 아쉽네요. 우리가 축원할 때 허수낭감許垂朗鑑 즉 밝은 거울처럼 증명해 주시라고 하잖아요. 화엄경에 보면 금시조가 악용을 잡아먹고 뼈를 발라내는 시간이 잔물결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그런 짧은 순간인데, 시방세계의 부처님이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고 있다가 어떤 발심한 사람이 바른 법을 깨달으면 그 보다 짧은 순간에 이를 증명해 준다고 했습니다. 어떤 미묘한 화신으로 나타나서 점검해 줄지 모릅니다. 중생계가 다하도록 제불보살님의 원력이 다하지 않으니 걱정 마시고 진정한 발보리심이 안 되는 것을 걱정하시오.

♣ **학인** : 방장스님께서 현 출가자들을 위해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지남으로 삼겠습니다.

● **방장스님** : 머리는 차갑게 지혜롭게, 가슴은 따뜻하게, 손발은 부지런해야 돼요. 게으르면 안 돼요.



아쉬운 발길을 돌리며...



방장스님께 가르침을 받은 후 얼굴에 미소가 가득한 탐방팀!
상사당 앞에서 자취를 남기다

설문이 끝나고 난 뒤 방장스님의 책 한 권을 선물로 받아들고 서로 바라본 우리들의 얼굴은 환희로 물들어 있었으며, 답답했던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음을 일깨워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소중하고 행복한 가르침을 주셨던 방장스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운문사 밤하늘에 수놓아진 별들을 보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펼치신 수많은 선지식들께도 감사드립니다. 🍃

죽음 앞에서 한 걸음 더

혜광 / 사집과

한동안 잊고 있었습니다. ‘왜 나는 난데없이 출가를 했을까?’ 하고 생각을 일으키곤 했었는데 말입니다. 깊게 사유하지 않고, 그저 밖으로의 여행에 더 이상 의미를 찾지 못 하고 방황할 때 안으로의 여행을 권하셨던 은사스님의 말씀을 계기로 여겼습니다.

죽음이라는 키워드를 제대로 꺼내보는 것은 오랜만입니다. 강원에서야 여상히 수업 때마다 생사가 거론되지만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현실에 닥친 문제로 대면한 건 대학시절 이후 처음이 아닌가요 싶습니다. ‘생사의 장’이라는 불교호스피스 교육이 계기가 됐는데, 이 글을 통해 교육을 받으며 느낀 점과 마친 후 든 생각들을 정리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중학교 시절부터 대학시절 중반 정도까지 저는 상당히 염세적이었습니다. ‘왜 살아야 하지’라는 물음에 우울해지고는 했습니다. 내생에 대한 인식은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나 자연스레 죽음 다음을 생각해보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삶의 의미는 스스로 만들자고 마음먹은 후부터는 관심이 생기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행복하려 떠난 길에서도 순간 찾아오는 공허감은 온 세계를 무채색으로 만들곤 했습니다. 그때는 외로움이나 서러움 같은 감정이지 했는데, 돌아보니 그건 깊은 슬픔이었고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순간이 영원하지 않을 것임에 대한 체념 섞인 슬픔,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면 이 모든 게 사라질 것이라는 절망을 띤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한 것 같습니다. 찰나생 찰나멸을 목도해 무상고 무아를 체득할 수 있는 수행, 인과의 법칙이 엄정한 세계, 끈질긴 업식을 벗어날 수 있는 길, 그리고 괴로움을 낳는 슬픔과 두려움을 벗고 평정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희망으로 말입니다.

알 껍질을 깨기 힘들었던 행자시절을 지나 강원에 와서도 자괴감이 들곤 합니다. ‘이럴려고 출가했나’, ‘받아 누리고 있는 것들을 제대로 녹일 수 있을까’ 등등 이 몸과 마음이 번뇌 덩어리로 여겨져 견디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호스피스 교육의 시작점에서 스스로를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고 싶어 하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고뇌하며 마음을 깨끗이 하려고 발버둥치는 것도, 그러면서 또 매일 작은 일들에 마음 일으키며 아웅다웅 사는 것도, 실바람에도 위태롭게 흔들리며 쓰러질 것 같은 것도 '이제 갓 태어난 병아리에 불과한 초심자에게는 당연한 것 아닌가' 싶은 것입니다.

한 교수스님께서 강원에서 부리는 탐욕이라고 해봤자 정통에 1분이라도 일찍 들어가고 싶은 정도 이지 않느냐고 하셨듯이, 이 천국 같은 아수라의 시대에 출가자의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재가자의 삶과는 다른 차원의 업이 쌓이고 있을 것입니다. 교육 중 범문을 해주신 티베트의 고승께서 머리를 깎은 것만으로도 매일 선업이 쌓이고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꾸준히 노력해나가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얼마나 안도감이 들면서 힘이 났는지 모릅니다.

죽음 이후의 길을 가는 가상체험에서는 스스로에게 놀랐는데, 업보를 걱정하곤 했음에도 악도에 떨어지지 않는을까 하는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의 번뇌는 어떻게 하면 악행을 멈추고 선행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고군분투의 연장선상에 있었고, 마음 깊은 곳에는 스스로에 대한 신뢰가 움트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을 제 두 다리 두 발로 굳건하게 디더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감사하고 용기가 났습니다.

교육이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 저의 숙제 중 하나는 보리심이었습니다. 자리自利만 생각하고 시작한 출가의 길에서 이타利他가 수행의 열매를 맺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한쪽 날개라 하고, 또 생사윤회의 출발점인 아집과 이기심에서 벗어나는 것과 이타심을 일으키는 것은 자연히 서로를 돕는다고 합니다. 호스피스 같은 활동이야 확연히 이타의 길이지만, 좌선을 하면서는 어떻게 보리심을 키우고 참된 이타행을 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운문사에 돌아와 한 상반스님과 대화하다가 그분께서 제 고민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눈앞의 저 푸른 산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그저 거기 있지만 수많은 중생들이 그 산에 기대어 살아간다고요. 앞으로 제가 어떤 정견 위에서 자리와 이타를 어떻게 행하게 될지는 꾸준히 고민하며 정진할 일입니다.

또 다른 숙제는 프로그램 중 떠오른 강한 불온한 감정들입니다. 그것들을 꺼내며 가슴에서 딱딱한 못과 같은 것을 발견했는데, 교육 후 화라든지 어두운 감정들이 더 강렬하게 느껴지곤 합니다. 초반에는 당황스럽고 싫었는데 밑에 가라앉아 있던 불순물들이 올라온 것이겠거니 지금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느 교수스님 말씀처럼 삼계의 도사, 사생의 자부가 되려 이 길에 들어선 자가 가슴의 못 하나에 기죽지 않으리라, 또 있다는 걸 알았으니 왜 뽑지 못 하겠느냐는 어느 분의 말씀에 힘을 얻어 그것이 무엇이든 피하지 않고 대면하려고 합니다.

죽음을 앞에 둔다는 것은 인생을 되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참된 삶을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살고 싶어 하는 존재에 대한 갈망이 매 순간 일어나지만 이 갈애를 잠재우고 부처의 길에서 평정 가운데 이번 생을 마치기를, 저와 더불어 모든 중생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발원합니다. ❹

‘나’를 돌보는 한 끼

혜범 / 한국 사찰음식문화체험관 지도법사



計功多少量彼來處 이 음식이 어디서 왔고
付己德行全缺應供 내 덕행으로 받기가 부끄럽네
放心離過貪等爲宗 마음에 온갖 욕심 버리고
正思良藥爲療形枯 몸을 지탱하는 약으로 알아
爲成道業應受此食 도업을 이루고자 이 공양을 받습니다

- 오관계五觀偈 -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개인주의자 선언〉, 〈약간의 거리를 둔다〉
등 최근 서가의 베스트셀러 추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요즘 현대인들의 화두는 ‘나’인 듯합니다. 크고 작은 관계의 피로감에서 벗어나 오롯이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내 마음이 말하는 바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것이지요. 그 누구보다 살뜰하게 내 몸과 마음을 보살피고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라는 확신이랄까요? 건강한 개인주의의 대두는 자칫 소홀하기 쉬웠지만 실은 가장 손쉬운 힐링 또는 자아존중감의 발

현이라는 점에서 유의미하다고 보입니다.

나를 돌보는 키워드로 주목받고 있는 키워드가 몇 가지 있지요. 명상, 요가, 운동, 그리고 채식입니다.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저마다 건강한 삶을 유지하게 위한 여러 가지 힐링 공간과 도구의 발달을 꾀하는 가운데, 그중으



뜸은 먹거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채식은 나 자신의 건강뿐 아니라 단순 먹거리의 대상으로 전락한 생명체를 생각함은 물론 전지구적 환경 운동의 일환으로도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식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눈길을 끄는 것, 바로 사찰음식입니다.



‘건강한 먹거리’ 사찰음식의 기본은 제철 재료입니다. 자연의 순리에 순응하여 바로 그 때, 그 곳이 아니면 얻을 수 없는 생산물들을 취하는 것이지요. 이는 우리가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임을 일깨우는 한편 시절인연에 대해서도 곰곰 생각하게 하니, 여러 모로 사람들이 매료될 수밖에요.

사찰음식에도 여러 타입이 있습니다. 대대로 공양간에서 내려오는 전통 사찰요리가 있고요, 보다 접근이 쉽도록 재료와 특색 등을 창의적으로 재조합한 퓨전 사찰요리도 흔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제철 재료를 사용하여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고 이를 통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방편으로 이 같은 새로운 형태가 생겨나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제가 소임을 보고 있는 한국사찰음식체험관에서는 퓨전 사찰요리 강의는 되도록 가르치지 않습니다. 형태보다 의미에 중점을 두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최근 사찰요리는 건강한 삶의 방식의 하나로 현대인에게 가깝게 다가가고 있지만, 현대인들이 알고 있는 채식 문화, 비건 음식과는 기본 사상을 달리합니다. 사찰요리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재료의 중요성과 더불어 그 음식을 취하는 사람의 정신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사찰요리에는 불교의 근본

사상인 불살생의 계율이 녹아 있고, 재료를 다듬고 음식을 만드는 과정 속에는 우리의 정신과 마음의 작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퓨전 사찰요리는 현대인들의 입맛에 맞추어 개발되는 추세인데, 여기에 집중하다보니 자칫 그 음식이 어디에서 왔는지 근본을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점들이 퓨전 사찰요리를 조금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게 합니다. 다만 사찰요리 또한 시대와 함께 또 대중과 함께 변화 발전해나간다는 점에서 사찰요리를 배우고 가르치는 이들이 같이 조율하고 극복해나가야 할 몫이겠지요.

또한 퓨전이 아무리 강세라 하더라도 ‘클래식’은 힘이 세니까요. 전통 사찰음식이 위축될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세간에서는 레트로가 유행이라고 하지요? 예부터 내려오는 것은 그대로인데 시각이 새로워져 신선하게 여기는 것, 멋스럽게 여기는 것. 이는 사찰요리에도 해당될 것입니다. 제아무리 피자, 햄버거가 인기를 끌더라도 때가 되면 할머니 밥상과 어머니 손맛을 찾듯이요, 소박하고 담백한, 또 때로는 투박한 사찰음식 그 자체를 맛스럽게 여기는 ‘맛쟁이’들이 꽤나 많다는 사실!

제가 있는 곳 이야기를 좀더 해볼까요. 저는 현재 서울 조계사 인근, 대한불교조계종 한국 불교문화사업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찰음식문화체험관 향적세계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일반인은 물론 불자와 스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갖가지 요리강좌가 열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초급, 중급, 고급과정을 각각 12주에 걸쳐 진행하며, 필기와 실기시험을 거쳐 12주 일정의 지도자과정을 수료하면 사찰요리 자격증을 수여합니다. 저 역시 이 자격증을 수료했는데요, 그 과정이 마냥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사찰요리 실기시험에 응시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미나리감자전과 애호박두부찜 등 두 가지 음식을 60분 안에 만들어 제출하는 것이 그날의 과제였습니다. 미나리감자전은 미나리에 감자를 갈아서 전을 부치고 사과를 갈아서 초장을 만들어 완성하는 것이고, 애호박두부찜은 두부에 각종 채소와 버섯을 넣어

소를 만든 뒤 애호박을 3등분하여 속을 파고 그 안에 버섯소를 넣어 찜기에 찌서 제출하는 것이었습니다.

떨리는 마음, 긴장한 손길. 요리과정이 썩 매끄럽지는 않았지만 제출 시간을 준수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요소이기에 마음도 손도 바빠 움직였습니다. 여유는 없었지만 집중력을 발휘해 마침내 요리를 완성하고 완성된 요리를 체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시험 감독관 스님께서 지나가시다 완성된 요리에 자꾸만 눈길을 주시는 겁니다. '어라, 왜 자꾸 쳐다보시는 거지? 무엇이 잘못되었나?' 다시 곰곰이 요리과정을 돌이켜보는데, 아뿔싸! 초고추장이 놓여야 하는 자리에 간장 종지가 놓여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하! 미나리감자전에는 초간장이 아니고 초고추장이었지!' 사과를 보면서 초고추장을 만들어야지 생각하고는 초간장을 만들어 내놓은 겁니다. 우여곡절 끝에 시간 내 과제를 제출하고 합격증을 받았지만, 그때 그 감독관 스님의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를 일이지요. 초보 사찰요리 지도자와 그를 인도해주신 스님의 따뜻한 눈빛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감자전에 얹힌 이야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제는 체험관에서 수강생들에게 사찰요리를 가르치고 있는 강사의 입장에서인데요. 그날 수업 주제는 감자전이었습니다. 보통 사찰에서는 감자를 갈아서 전을 부쳐 먹는 것이 여름나기의 필수 행사이자 별미이지요. 익숙한 요리이니 가벼운 마음으로 아무런 준비 없이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미리 준비된 감자전 레시피에는 '감자



를 썰어서 녹말가루를 조금 넣고 전을 부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어라, 감자를 썰어?' 평소에는 감자를 갈아서 사용하는데 조금 당황했지요. 아무튼 감자를 조금 굵게 썰어서 식감을 좋게 해야지 하고 감자를 썰어 녹말을 풀어 부치는데 감자가 자꾸만 흩어져서 뒤집어지질 않는 것입니다. 어찌어찌 시범으로 전을 부쳐놓고 수강생들에게 조리대로 돌아가 만들어보라고 하는데, 여기저기서 감자전의

형태를 잡을 수 없다고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칼질이 익숙하지 않은 수강생들이 감자채를 거의 볼펜 정도의 굵기로 썰어놓지 않았겠어요. 감자채를 너무 크게 썰었기에 서로 엉겨붙을 힘이 없고, 녹말을 많이 넣어도 감자전의 모양을 갖추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수강생들의 엉망진창 감자전을 돌아보면서 쉽고 자주 하는 요리라고 아무런 준비 없이 강의에 들어온 것에 대한 후회와 미안함에 그저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업이 끝날 무렵 “감자를 너무 크게 썰면 이렇게 됩니다.” 하고는 다 같이 한바탕 웃고 말았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 완전히 내 것으로 소화한 것이 아니면 남에게 전달하는 일에는 더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스스로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이렇게 사람들과 만나면서, 내가 아는 좋은 것을 알려주면서, 그 과정에서 나의 부족한 점을 알고 더 나은 내가 되도록 노력하는 과정이 참으로 소중하고 고마운 나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오이옹심미역국’ 레시피를 소개하며 글을 마칠까 합니다. 미역국에 쫄깃하고 부드러운 옹심을 넣어 재미있는 식감과 맛을 느낄 수 있는 겨울철 별미이니 도반스님과 함께, 선후배 스님과 함께, 또 은사스님과 함께 맛있는 한끼를 만들어보길 바랍니다.

재료 및 분량

불린미역 100g, 건표고 4개, 오이 1/2개, 찹쌀가루 1C, 녹말가루 2T, 간장 1T, 들기름 1t

만드는 방법

1. 미역은 물에 씻어 살짝 불린 후 물기를 꼭 짰 다음 4cm 길이로 잘라 간장에 무친다.
2. 건표고는 미지근한 물에 불려 물기를 꼭 짰 다음 0.7cm 두께로 채를 썬다.
3. 오이는 소금으로 문질러 씻은 뒤 강판에 갈아놓는다.
4. 간 오이에 찹쌀가루를 넣고 반죽해서 직경 3cm 크기의 옹심을 만든다.
5. 오이옹심을 녹말가루에 굴리고 끓는 물에 삶아 익힌 후 찬물에 행군다.
6. 표고버섯 불린 물에 채 썬 표고를 넣고 끓이다가 양념한 미역을 넣고 10분 정도 끓인 뒤 옹심을 넣고 끓이다가 옹심이 떠오르면 들기름을 약간 넣는다. ㉠



해범 스님

1999년 운문사승가대학 졸업, 동국대학교 선학 전공,
동일한 대학에서 불교사회복지학으로 석사학위를 취득,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다도 지도사, 불교 상담사 등의 여러 분야에서 자격증을 취득,
포교활동 중으로, 현재 한국 사찰음식문화체험관에서 지도법사로 포교에 힘쓰고 있다.

清風寮

둘러보고

스스로에

但辨肯心

되새기고

끊임없이

잊지않고

이내이곳

맑은바람

새도반과

밝은별을

살피보되

속지말라

隨處作主

실천하라

說한말씀

言約함에

清風寮에

맑은바람

마주앉아

보게되리

雲門寺冬節

學人吳得



청풍료

무득 / 사집과

둘러보고 살피보되
스스로에 속지말라
但辨肯心 隨處作主
되새기고 실천하라
끊임없이 說한말씀
잊지않고 言約함에
이내이곳 청풍료에
맑은 바람 불러오고
새도반과 마주앉아
밝은별을 보게되리



운문승가대학 교수이신 은광 스님이
회주 명성 스님에게 전집을 전하고 있다



전집 봉정식에서 인사말을 전하는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

명성 회주스님
구순 및
봉정식을
축하드립니다

편집부



회주스님과 추억을 되새기며 찰칵!



내빈들과 함께 하는
케이크 커팅식



청풍료에 모이신 동문 스님들 환영합니다~!!



모두를 대표해서 촛불을 끄시는 회주스님. 하나~ 둘~ 셋~ 후~~!!!

“합동결혼식이 있듯, 오늘은 합동생일잔칫날입니다.
여러분 모두 생일 축하합니다~.” 🍪



전강제자 교수스님들



운문유치원 어린이들의 하트 발사~!!



23회 졸업생 스님들



불교미술 팀의 '봄바스틱'



오백전 백일기도 회향

- ①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시는 명성 회주스님
- ② 환희로워라! 명성 회주스님의 회향법문
- ③ 따스한 햇살이 함께 했던 날, 오늘은 기도하는 날!
- ④ 모두 함께 정근해요 "제대성중"
- ⑤ 운문사 대중스님들께서 보시하신 책을
신도님들에게 나누어주고 있는 자원봉사 불자팀
- ⑥ 사부대중이 함께 하는 오백전 백일기도 회향
- ⑦ 쓱~쓱~ 청소중인 정통 소임자 스님들
- ⑧ 오백전 전각 뒤, 부반장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지요



⑧



그리고 일심동체一心冬體

편집부

- ⑨ 우리들의 스타~! 회주스님
- ⑩ 청풍료를 가득 채운 동문스님들과 "스승의 은혜" 노래 제창
- ⑪ 집으로 돌아가기 전, 회주스님과 함께~!
- ⑫ 가슴 훈훈해지는 후원의 광경
- ⑬ 파릇 파릇 치문반, I'm buddha, we are buddha~!
- ⑭ 반가운 마음에 미소 가득!
- ⑮ 차례법문이 있던 날, 사집반 모여라~!
- ⑯ 화엄반 미소 부처님들
- ⑰ 경주 불국사 석굴암 참배



습관을 바꾼다는 것

자유 / 사미니과



사미니과 도영

행자 시절 이곳 운문사에서, 잘못된 습관들에 대해 가장 크게 걱정 듣고 습의를 받았었다. 대중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을지 걱정만 가득했던 막연한 상태에서 입학할 용기를 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나를 걱정해주셨던 그분들이 운문사에 계시기 때문이었다. 그분들이 보고 싶었고, 다시 만나고 싶었다.

나의 어질러놓는 습관은 출가 이래로 강원 입학 직전까지 큰 걱정거리였다. 그 시기에는 정리 정돈에 대한 개념조차 없었던 터라 이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 무수히 많은 걱정을 들었음에도 끄떡도 하지 않고 업을 버리지 못 하고 있었다.

그때의 나는 걱정을 들은 다음 매번 결심만을 일삼고 있었다. 어떤 날은 그 다짐을 잊고, 또 어떤 날은 게으름 때문에 타인에게 번번이 부끄러운 정리상태를 들키고 말았다. 심지어 어떤 날은 '이 정도면 됐겠지' 싶을 만큼 나름대로 정리정돈을 마친 후 '이게 정리를 한 거냐'라는 걱정을 듣기도 했다. 말로만, 생각으로만 변화하고 싶다고 했으니 돌이켜보면 스스로에게 당당하지 못 한 생활이었다.

그랬던 내가 변화할 마음을 낸 것은 운문사 신입생 면접 직후였다. 입학 후 습을 바꾸지 않았을 때 벌어질 일들이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그려지기 시작하면서, 발등에 불이 붙은 사람처럼 조바심이 나고 걱정되기 시작했다. 그다음부터 입학 후 장검사 당일까지, 계속해서 쉬지 않고 내 공간을 들여다보면서 정리하고 또 정리했다.

지대방에서 반 스님들이 오순도순 둘러앉아 점점 친해져 가는 모습이 부러우면서도, 함께 시간을 보냈다가 정리정돈을 마치지 못 하게 되었을 때의 결과를 떠올리면 그 속에 낄 수가 없었다. 주변을 신경 쓰거나 돌아볼 겨를 없이 그저 정리정돈만을 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기다리던 장점사가 끝난 후, 정리정돈 상태 불량 명단에 내 범명은 포함되지 않았다.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었다. 그날부터 내가 느낀 내 삶의 질 또한 달라졌음은 물론이다.

그 후 정리정돈에 대한 스트레스는 사라졌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그 후 불안감을 없애고 자신감을 가지기 위해 계속 노력했다. 그러던 어느 날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를 믿지 못 하는 만큼 불안했고, 그만큼 걱정하며 지냈다.

처음에는 단지 경험과 능력이 부족한 탓이라고 여겨 다양한 경험들에 도전하며 뿌듯함과 재미를 느꼈다. 그러면서 스스로가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달랐다. 내가 아직도 늘 긴장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었다. 이때부터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지난 1년간 무얼 한 건가 싶었다. 이대로는 4년간 아무리 많은 경험을 한다고 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겠다 싶었다.

막막한 심정으로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본 결과, 실은 모든 면에서 대중의 눈치를 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거나 남과 '잘 지내기 위해', 그리고 '잘하려고' 애써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스스로에 대한 불신만 가득한 상태에서 대중들의 수많은 기호와 기준에 맞추려고 했으니 마음이 산란했던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거짓된 생활을 해왔다는 생각이 들었고 나의 모든 것이 가짜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한 마음 상태가 지속되던 중, 〈치문〉 수업시간에 가假라는 매우 의미심장한 단어를 배웠다. 그 파생된 의미는, 사람이든 돈이든, 명예든 간에 의지하면 그것의 노예가 되고, 무언가의 노예가 되면 거짓된 삶이라는 것이었다. 바로 나의 이야기였다.

이제 보니 나는 주인답게 산 적이 없었다. 걱정이란 걱정은 있는 대로 들어왔음에도 나를 걱정 해주신 분들의 마음과 다른 사람들이 느꼈을 괴로움이 전혀 와 닿지 않았던 이유는, 내가 남에게 의지하면서도 주변에 무관심한 채 살아왔기 때문이었다. 내가 할 수 있고 해낸 것 이상으로 좋은 평가와 좋은 과보를 받고 싶어 했던 그 마음 역시 거짓을 꿈꾼 것이었다.

정리정돈 습관은 수면 위로 드러난 빙산의 일각일 뿐이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습관이 아니었다. 나의 생각, 말, 태도 모두 내가 만들었고 지금도 끊임없이 만들어가고 있는 습첩이다.

내가 해야 할 일은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무언가에 의지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정직하게 보고 듣고 말하고 실천하는 단순한 것들임을 깨달았다.

또한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지만, 내 중심을 잡고 주변과 조화를 이루며 어떤 마음을 쓸지 선택하고 이를 책임지는 과정들이 보람되고 즐거워서 그럴 때 내 마음이 얼마나 편안하고 떳떳한지 이제라도 알게 되어 감사하다.

운문사에 살면서 감사한 일들이 참 많았는데, 그 기억들을 잊고 지내왔던 것 같다. 학인이 된 지금은 행자시절 이상으로 습첩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매순간 얻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시간의 여유는 없지만 마음의 여유를 길러, 최소한 나도 내가 받은 만큼의 배려와 관심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는 수행자가 되기 위해 한걸음씩 연습을 해나가려고 한다. 🍃

운문+er로 산다는 것에 대하여

(운무너란 뉴요커처럼 운문+er을 붙인 합성어로 운문사에 사는 사람, 운문인을 뜻한다.)

진정 / 사집과

운문사처럼 큰 대중에서 산다는 것을 나는 일찍이 생각해본 일이 없었다. 그런 나에게 어느새 2학년의 겨울이 지나가고 있다. 운무너 4년 인생 중 절반이 지났다. 우리는 피를 나누는 가족보다도, 격렬히 사랑하는 연인보다도 빈틈없이 밀착되어 너와 내가 무분별한 선상에서 모든 것들을 공유한다. (나 자신도 몰랐던 내 모습마저도!) 모든 것이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수행처에서 피동적이고 불가피하게 불일불이不二不異의 경계를 생생하고 적나라하게 날 것으로 체득하며 살아가고 있다. 출가 전의 나라는 사람은 도시에서 자람, 아파트키드, 핵가족, 6살부터 각방사용, 방과 후 학원 생활로 인하여 개인적 성향이 매우 충만하였다. 덕분에 나의 출가생활 중 가장 큰 고행은 공동체 생활에 적응하기였다.

행자 수계식 때 기억에 남는 한 장면이 있다. 가림막도 없는 좁은 공간에서 초를 다루며 정신없이 함께 씻던 순간이다. 그것은 비극적 장면을 희극화하여 보여주는 B급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출가 전부터 우리의 몸에 배어 있었을, 그 우아하고도 기품 있는 몸짓은 안타깝게도 힘껏 방하해야 했다. 제빠르지 못 하면 제대로 씻지도 못 하고, 세탁도 못 하고, 빨래를 널 공간조차 확보하기 어려웠다. 주변을 돌아볼 틈도 없이 빠르게 움직이다 보면 몸짓이 둔한 행자님들은 이리 치이고 저리 뒤처지기 마련이었다. 그 속에서도 뒤처지는 행자님들을 살뜰히 챙기는 관세음보살행자님들은 늘 존재했다. 나는 수계식 중 올라온 감기 때문에 간담실을 자주 오갔는데, 하루는 약 기운에 취해 저녁에 불 때 향 올리는 것을 깜빡 놓치고 말았다. 예불에 들어오신 인례사 스님께서 주변을 살피지 않은 별로 단체 별점을 주셨고 별점이 쌓여 있던 행자님들이 그 날 밤 무더기로 참회절을 나갔다. 원인제 공을 한 나는 매우 부끄럽고 미안했다. 그 날 이후로 여러 관세음보살님들께서 몸을 나투어 도움의 손길을 내어주었고, 그 덕에 수계식을 잘 끝낼 수 있었던 것 같다. 이 날까지 그렇게 아파본 일이 없어서 크게 당혹스럽기도 했지만 더불어 함께 해준 수계도반스님들께 진한 고마움을 느꼈던 소중한 경험이었다.

시간이 흘러 운문사 1학년에 들어왔다. 1학년 첫 철의 모습은 수계식 때의 모습을 다시 떠오르게 했다. 촌각을 다루는 상황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습의사항들과 옷 입는 법부터 물 사용법까지 모든 것이 정해져 있는 정통장 습의 때문에 세숫대야 하나도 어쩔 줄 몰라 하며 내가 씻는지, 씻는 게 나인

지, 사방으로 튀기는 물을 맞으며 갈아입은 옷마저 다시 세탁돼 버리는 급박한 샤워시간이 끝나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스님들로 인한 탈수기 전쟁이 벌어졌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의문이 들 때면 그 상황을 만화로 그렸다. 웃기지만 슬픈 만화는 몇 도반 사이에서 인기리에 연재되었다.

온 도랑에 하염없이 연등을 붙이고 떼어내던 부처님오신날 행사가 지나고 어느덧 다가온 여름철, 아직은 어설픈 우리에게 염불대회와 여름불교학교라는 큰 행사가 다가왔다.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음치 박치로 이루어진 무욕의 도반스님들을 리드하여 염불대회를 준비하는 일은 참으로 쉽지 않은 여정이었다. 150여 명의 아이들과 함께 뛰어 놀았던 2박 3일의 여름불교학교를 준비하는 일 역시도 만만치 않았다. 이것만 끝내면 나가겠다며 여름벌과 더불어 진지하게 불태우던 내 안의 진심臍心은 모든 일정이 끝나고 너무 좋아서 내년에 또 오겠다며 환하게 웃던 아이들의 미소와 온갖 역경을 거쳐 본선 무대까지 진출해 상까지 받아버린 도반스님들의 기뻐하던 웃음에 유달리 무더웠

던 그 해 여름을 보낸 시원한 초가을바람과 더불어 녹아내렸다. 운문사수행공동체의 한 일원이기에 느낄 수 있는 복잡미묘한(?) 감동이자 큰 수행이었다.



사미나라 도영

첫 철이 지나면서 조금씩 생겨난 틈 속에서 운문의 자연이 눈에 들어왔다. 고개를 들면 펼쳐지는 푸른 하늘과 계절마다 다른 빛을 뿜어내는 산의 모습에 감탄이 절로 나왔다. 청풍료 창호지 문이 열릴 때마다 펼쳐지는 마당 풍경에도, 회성당에서 낯선 한자들과 씨름하다 잠시 고개를 들면 창문 너머로 피하당의 꽃밭과 꽃나무들, 저 멀리 고고하게 서 있는 북대암의 정경은 늘 감동이

었다. 도랑 곳곳에서 매 철마다 향기롭게 피어나는

매화꽃, 목련꽃, 벚꽃, 능소화, 장미, 후박꽃, 국화꽃 등등, 늘 시원하게 흘러가는 맑디맑은 이목소. 어느 멋드러진 시인은 매 철마다 꽃구경을 하러 이곳저곳 풍류를 즐기러 다니는 수고로움이 있

다던데, 우리는 그러한 노고 없이 그저 눈길만 돌리면 그곳에 꽃이 닿았다. 선배스님들의 피, 땀, 눈물로 이루어진 화랑 동산과 보리수수목원을 걸으며 앵두와 보리통열매도 따먹고, 휘영청 밝은 보름달밤의 달빛 포행도 운무너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이다.

이런 순간들에 놓여 있을 때면 문득 망극한 황송함으로 모골까지 숙연하다. 나같이 별 볼일 없는 사람이 무슨 복으로 이토록 찬란한 천혜의 자연 속에서 인류의 가장 고귀한 가르침을 배우고, 그 가르침을 읽는 소리에 둘러싸여 숨을 쉬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이 승가공동체이기에 가능한 일이란 것을 지금은 알게 되었다.

여러 행사들을 준비하고 여전히 힘들지만, 치문 때보다는 버티는 힘이 생겼다. 몸은 여전히 바빠도 일상에 익숙해진 힘 덕분에 조금씩 여유도 생기는 것 같다. 공동체의 당혹감보다는 감사함이 늘어나는 운문사에서의 생활에 나도 이제는 어엿한 운문인이다. ❷

이별에 임한 갈무리

- 2019년 졸업에 즈음하여 -

설민 / 사교과



어느덧, 만남 뒤의 긴 이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곳 운문사승가대학에 입학한 후 청풍료 큰 방 생활을 함께했던 56회 선배님들. 일거수 일투족을 살피주던 제일 무서운 존재이기도 하였고, 또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자비와 격려를 아끼지 않던 누이같이 따뜻하던 화엄반 스님들과의 이별을 앞두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척이 천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어도 살피지 않고 관심이 없으면 천리 밖에 있는 사람과 다름이 없습니다. 부처님 당시, 부처님의 교화가 왕사성 구석구석 가득하였지만 성 동쪽에 살던 할머니는 부처님의 열반에 임해서 ‘도대체 석가가 누꼬?’ 라고 하였듯이 이곳에서의 생활도 그러했습니다. 함께 소임을 살아본 상반스님이 있는가 하면 지난 3년 동안 인사 정도만 하고 지나치던 조금 먼 스님도 있었습니다. 낯설고 어설피서 수행의 수修자도 불교의 불佛자도 모르던 저희들을 바라보아 주고 걱정해주며 발로참회發露懺悔를 통해 승가의 일원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가리도록 이끌어 주어서 이제 겨우 수행의 문턱을 넘은 듯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선배스님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보살핌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때론 매서운 채찍질을 받으며 상처를 만든 날도 있었지만 그것 또한 더 큰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인 줄,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입장에서 비로소 감사인 줄 알겠습니다. 선배 스님들의 가르침 속에서 자신 속에 치성하던 탐진치貪瞋癡 아만我慢 질투嫉妬의 모습을 이제 겨우 알아차리고 사마타 수행의 집중을 실천합니다.

운문사에서 상반스님과 함께 가깝게 알아가고 배울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은 후원과 사리암입니다. 그것도 그 철에 소임이 없는 스님만 가능한 지복至福입니다. 대중 스님들의 몸에 약이 되는 갖가지 음식을 준비하느라 분주하던 후원이나, 나반 존자님께 작은 소원에서부터 큰 소원까지 간절

한 마음을 담아 기도하는 신도님들의 분주한 발걸음 속에서도 아랫반 스님들을 챙겨주던 상반스님들의 품은 넉넉한 큰 형님이었습니다. 물결처럼 밀려와서 활기 넘치던 곳이 저녁이 되면 물결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이 가운데서 1파트(약 5일간)의 소임을 함께 살며 웃고 이야기하고 맛있는 간식을 나누어 먹으며 모처럼의 함께했던 기억이 이제는 따뜻한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선배 스님들이 떠나간 그 자리를 딛고 저희들 역시 운문사에서 교육기간이 끝나면 제각기 자기 정진처를 향해 날아갈 것입니다. 마치 옛 시 구절과 같이 '어제 저녁에는 한 가지에서 함께 잠을 자더니 오늘 아침에는 뿔뿔이 이별의 말도 다 못 하고 날아가는 새와 같다' 고 하신 말씀말입니다.

우리는 꿈속에서 노닐었습니다. 환화와 같은 세상, 요술쟁이가 만들어 놓은 요술 같은 세상에서 요술같이 함께 살았지만, '마치 요술쟁이가 만들어 놓은 호랑이에게 오히려 요술쟁이가 잡아먹히듯', 환과 같은 이별인 줄 알면서도 섭섭함을 견딜 수 없습니다. 최상의 감로수를 건넨 상반스님들의 물은 보통의 물과는 달리, 언제 어디서나 마음 챙김과 깨어 있음의 차를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감로수 덕분에 성장할 수 있었던 감사함을 잊지 않겠습니다. 선행으로 모든 중생들에게 공덕을 회향하고 이미 갖추어진 청정에 대한 자각을 잃지 않고 수행해 나아가겠습니다.

만해卍海와 같이 만남은 늘 이별을 염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슬픈 마음은 섭섭함에 미어 집니다. 그러나 짧은 만남과 긴 이별에 임해서도 초연하고 자유롭고자 절대 헤어지지 않는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바로 순수의식인 '불성佛性' 이란 친구입니다. 이 친구와의 관계는 마음의 고요함을 지속하고, 알아차림이 깊어질수록 더욱 친근해집니다. 진정한 우정친구인 궁극의 지혜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수행자답게 묵묵하게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메시지인 자등명법등명自燈明法燈明을 떠올리며 성숙한 이별을 위하여 자신을 돌아봅니다.

금당에서의 사교반도 저물어 갑니다. 컷전에 남은 가르침의 덕분으로 '번뇌의 계박繫縛을 풀고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도 나는 주문을 외우듯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악업을 짓지 않으리라. 그 리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테다.' 卍



소·확·행의 길

자운 / 대교과

안녕하십니까? 나무들이 삭발하는 계절인 겨울, 무재칠시無財七施란 주제로 차례법문을 하게 된 화엄반 자운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느 한 날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 “저는 왜 하는 일마다 잘 안 될까요?”라고 여쭙니다. 부처님께서는 “네가 남에게 베풀지 않아서이다.”라고 답하셨습니다. 또 다시 묻길, “부처님, 근데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요?” 하자, 부처님께서는 “재물이 없어도 남에게 베풀 수 있는 7가지 보시가 있는데, 이 7가지를 네가 일상생활에서 생활화한다면 너에게 영원한 공덕이 되리라.”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것을 바로 무재칠시無財七施라 합니다.

무재칠시의 첫 번째는 화안시和顔施입니다.

환한 얼굴로 남을 대하는 것으로 상대를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옆 도반스님을 마주 보고 웃으며 인사해 볼까요? “반갑습니다” 웃는 얼굴로 인사 한마디에도 이렇게 기분이 좋아집니다.

무재칠시의 두 번째는 언시言施입니다.

사랑의 말, 칭찬의 말, 위로의 말 등 따뜻하고 진심어린 말로써 상대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언시의 예시로 제가 잘 쓰는 문장이 있는데요. 다같이 “자운 스님 멋있어요!” / 이번엔 “회주스님 존경합니다!” 얼마나 듣기 좋은 말인가요. 이렇게 간단한 한 문장의 말도 한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무재칠시의 세 번째는 심시心施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따뜻한 마음을 주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괴로움을 헤아리고 진심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주위에 반연 있는 분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절로 드시지요? 또 아이들을 보면 저절로 따뜻한 마음이 들지 않나요? 그 마음 또한 보시를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재칠시의 네 번째는 안시眼施입니다.

호의를 담은 눈으로 상대를 온화하고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저를 보시며 따뜻한 눈길을 보내 보실까요? 저 지금 웃고는 있지만 사실 엄청 떨고 있습니다.



무재칠시의 다섯 번째는 신시身施입니다.

몸으로 베푸는 것으로 몸이 불편한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무거운 짐을 든 어르신들이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분들을 보면 저절로 가까이 다가가게 되지 않나요? 안 그러신 분들은 지금 부터 하시면 됩니다.

무재칠시의 여섯 번째는 좌시座施입니다.

앉는 자리를 내주어 양보하는 것으로 흔히 버스나 지하철에서 행할 수 있습니다.

무재칠시의 일곱 번째는 찰시察施입니다.

궁이 묻지 않고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알아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운문사를 방문한 분들에게 도량안내를 할 때면 주로 각 전각과 연결지어 복과 부처님, 운문사의 역사에 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때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왜 부처님을 믿어도 본인은 잘 안 풀리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대중스님들께선 이 질문에 어떠한 답을 내놓으시겠습니까? 또 지장전 같은 경우 웹툰 신과 함께를 예시로 들며 복과 보시에 관해서 설명을 합니다. 웹툰을 보면 지승에 가면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때 필요한 게 변호사입니다. 사후의 변호사는 생전 내가 남에게 베푼 바에 따라 에이스 변호사가 나올 수도 있고, 변호사 자체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가진 재물로 베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가진 게 없을 경우 이렇게 무재칠시로도 베푼 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도량안내를 할 때 화안시와 언시를 통해 그들의 긴장을 풀고 심시와 안시를 통해 옆 사람들과 소통하게 하며, 신시와 좌시, 찰시를 통해 이 세상에 보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처음 제가 운문사에 관한 도량안내에 대하여 공부한 이유는 신도분들의 질문에 대처하기 위해서였지만 시간이 흘러서는 운문사를 통해 불교를 배우게 되었고 그 배움을 나누는 게 즐거웠습니다. 또한 부족한 제 안내에서나마 운문사를 방문하신 분들이 불교를 조금이나마 알고 또 이 무재칠시를 통해 행복해져서, 이 사회가 조금 더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 운문사에 여러 사람들이 참배하러 오십니다. 그들을 향해 안녕하세요, 성불하십시오 등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건 어떠하신지요? 또, 대화를 하지는 않더라도 그들을 향해 두 손 모아 환한 미소를 보내 보는 건 어떠하신지요?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스님의 작은 미소와 행동 하나, 말 한마디가 그들의 마음에 행복의 씨앗이 되어 민들레 씨앗처럼 세상에 퍼지면 이 각박한 세상이 조금은 더 따뜻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이상으로 제 차례법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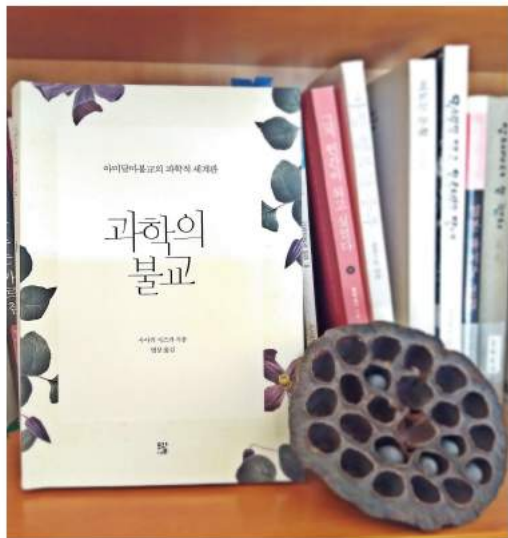


아비달마의 공간을 두드리다

성빈 / 운문사한문불전대학원

여름 내내 긴 막대기로 들춰가며 찾았던 애호박의 무리에서 용케도 나의 눈을 피해서 누렇게 된 호박을 서너 덩이 수확했다. 창고 한켠에 자리 잡고 있던 호박을 잘라서 씨를 발라내고 호박범벅을 해먹었다. 달콤한 맛이 좋았다. 어릴 적 먹었던 호박범벅과 딱딱딱한 아랫목이 그리워 질 즈음에 우연인 듯 필연적으로 나의 손에 '과학의 불교'라는 책 한 권이 주어졌다. '아비달마불교의 과학적 세계관'이라는 소제목 때문에 선뜻 손이 갔는지도 모르겠다.

사실 아비달마 하면 왠지 부담이 되었는데, 알 수 없는 인연으로 관심이 갔고 읽으면서 흥미가 생겨서 『구사론』과 조금은 친해지게 되었다.



이 책은 일본 하나조나 대학의 불교학과 교수인 사사키 시즈카 씨가 설일체유부의 아비달마 중 가장 완성된 형태의 책 『아비달마코샤』에 그려진 세계상世界像을 소개한 것이다.

『아비달마코샤』는 '아비달마의 창고'라는 의미며 우리에게 『구사론』으로 알려져 있다. 저자는 『구사론』의 재미와 중요함을 이해시키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라 한다.

이 책의 고찰 대상은 『구사론』 전반부의 '이 세상의 모습' 만으로 한정한다. 『구사론』의 세계관은 '물질, 정신, 에너지'의 삼원론三元論인데, 세 영역의 법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이 세상을 형성하고 움직인다는 것이다.

본문의 구성은 1)불교의 물질론(법과 극미), 2)불교가 인식하는 내적세계(심, 심소), 3)불교의 시간론, 4)불교의 에너지 개념(심불상응행법心不相應行法), 5)종합적으로 본 인과의 법칙, 6)분류에 따라 바뀌는 세계의 관점(5온, 12처, 18계)과 부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구사론』의 물질론과 인식하는 내적 세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소개해 보겠다.

물질세계는 '인식하는 5근'과 '인식되는 5경'의 영역으로 구성되는데 『구사론』에서는 이것들이 모두 극미(極微)라는 소립자로 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극미는 지, 수, 화, 풍으로 된 1차 기본입재(四大種)와 2차 가변입재(所造色)로 이루어지는데, 2차 가변입자가 많은 다양성을 지니는 탓에 이 세상 물질세계는 각양각색의 변모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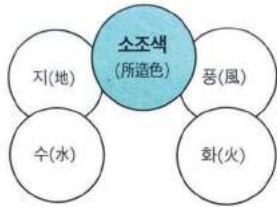


그림1-2 '가마' 유닛

즉, 물질 = 1차 기본 입재(四大種): 지, 수, 화, 풍이 한 세트로 나타남
+ 2차 가변 입재(所造色): 인식하는 물질 또는 인식되는 물질

'어떤 물질이 이 세상에 출현한다'는 것은 보다, 맛보다, 만지다 하는 네 종류의 인식에 대응할 수 있는 형태로 극미의 집합체가 나타나는 것이다.
(팔사구생(八事俱生), 수일불멸(隨一不滅))

다음으로 소개할 것은 불교가 인식하는 내적 세계이다. 이는 심(心)과 심소(心所)로 구성되어 있다.

5근이 그 대상인 5경과 접촉하여 생긴 인식 자체를 '심'이라 부르고 심이 바로 식이다.(다른 이름으로 의(意)라고 부른다)

즉, 심=의=식이다. 자극이 根을 통해 여기(勵起) (excitation)되는 반응 중 순수한 자극의 투영(投影)만을 심이라 하고 투영에 따라 생기는 개인적인 반응을 심소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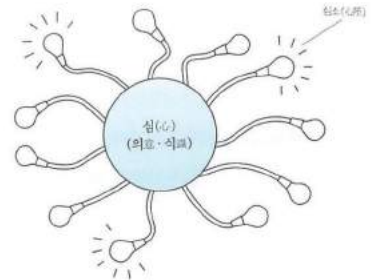


그림2-1 심심소이미지(문어그림)

'누런 호박을 본다' 할 때, 누런 색깔(色)이 실재하고 범벅을 씹을 때 나는 냄새(香)와 범벅을 먹고 느끼는 달콤함(味)과 호박씨를 발라 낼 때의 미끈거림(觸)이 극미라는 소립자로서 실재한다는 것이고 누런 호박을 보는 것은 심, 반갑게 여기는 것은 심소, 범벅을 먹고 달다하는 것은 심, 맛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심소가 되는 것이다.

저자는 물질론과 내적세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색법이나 심, 심소의 어디를 봐도 '나'라는 본체는 없다는 점이 중요하다.

'나'라는 것은 육체를 구성하는 색법과 거기에 두루 차 있는 심, 심소를 합친 전체를 말하는 가설의 명칭이다. 따라서 '나'라고 하는 실체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으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는 전부 '무아'이며 모든 요소의 집합체로서만 가능하다

저자는 어려운 『구사론』의 내용을 가마이론, 문어머리와 작은 전구의 비유를 들어 쉽게 설명하려 했고 『구사론』의 재미와 중요성을 이해시키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었으니 적어도 나에게만큼은 성공적이었다.

책을 다 읽고 나서 조금 피곤함을 느꼈지만, 저자의 바람 이상으로 재미있었다. 이 책으로 인해 운문사 확인 시절에 잠시 스치고 갔던 『구사론』의 문을 용기 내어 다시 열어 볼 수 있을 것 같다. 🍎

키보드 워리어 (Keyboard Warrior)



세 가지 업 가운데 구업口業이 실로 무겁다. 망언妄言으로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다고 하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들린다고 하고, 지은 것을 짓지 않았다고 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해친다. 혹은 기어縋語로써 아침하고 왜곡하고 화려한 말이나 허탄한 말을 하고, 가식적인 말을 하고, 웅고 그름으로 서로 싸우기도 한다. 혹은 악구惡口로써 말을 하는 것이 거칠거나 말을 낼 때 생각이 없어서 부모나 모든 중생을 혼란스럽게 한다. 혹은 양설兩舌로써 저쪽을 향해서는 이 말 하고 이쪽을 향해서는 저 말을 함으로써 교란시키고 일체에 분란을 일으킨다.

10월, 11월, 12월. 연이은 비보를 접하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이들 뿐만 아니라, 뉴스나 인터넷에서 세상을 등진 채 이 생을 마감하는 젊은 연예인들의 기사를 흔하게 볼 수 있게 되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지키고 싶었던 일상으로부터 작별을 고하게 만들었을까?

인간은 살아가며 많은 욕망을 느낀다. 욕망이 이뤄지지 않을 때 어떤 이는 체념할 것이요, 또 어떤 이는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다시 도전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는 자신의 욕망과 분노가 갈 곳이 없어, 다른 사람에게로 화살을 돌리는 사람들이다.

세상은 더 이상 직접적인 만남으로만 상처를 입히지 않는다. 인터넷이라는 가상의 공간에서 얼굴을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 하는 사람들로부터의 공격이 시작된다. 우리는 이들을 신조어로 키보드 워리어(Keyboard Warrior)라고 부르며 때를 지어 특정인에게 악성 댓글을 퍼붓기도 하므로, '악플러'라고도 부른다. 앞뒤 가리지 않는 언사(인터넷 게시·댓글) 때문에 토론 질서를 깨뜨리고,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 사회적 병폐로 지적되어, 이미 연예인 자살을 비롯한 여러 사건·사고의 배경 원인으로 지목되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다.

이렇듯 사회적 이슈인 악성 댓글이나 공격적인 댓글을 쓰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죄책감이 덜 들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쉽게 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며, 남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 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댓글에 대해서 불교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부처님께서는 몸으로 짓는 업, 입으로 짓는 업, 생각으로 짓는 업 즉 삼업三業을 올바르게 단속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고, 많은 경전에서 그 공덕과 과보에 대해 말씀하셨다. 혹 어떤 사람은, 댓글은 입으로 짓는 업이 아니므로, 구업口業이 아니라고 착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언어를 활용하여 거짓말, 교묘히 꾸미는 말, 이간질, 분노의 말을 글이라는 칼을 이용하여 마구 휘두르므로 이러한 행동은 신업身業, 구업, 의업意業 삼업三業이 모두 해당된다고 본다.

부처님의 본생담에는 아라한이 된 한 비구가 자신이 전생에 한 마리 개였는데, 그 몸을 받은 이유가 옛날 카사과 부처님 시절 범패에 능했던 비구스님이 범패를 잘 부르지 못 하는 노비구를 조롱하며 '스님의 음성은 개 짖는 소리와 같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만큼 한마디의 말에 힘과 무게가 있는 것이다. 또 『대지도론』에서는

“이 중생들은 나쁜 신업身業을 성취하고 나쁜 구업口業을 성취하고 나쁜 의업意業을 성취하여 성인을 훼방하고 쏘인 소견(邪見)으로 쏘인 소견의 업을 성취한지라 이 인연 때문에 몸이 무너져 죽은 때에는 악도로 들어서서 지옥에 태어난다. 또한 저 중생들은 착한 신업을 성취하고 착한 구업을 성취하고 착한 의업을 성취하여 성인을 비방하지도 않았고 바른 소견(正見)으로 바른 소견의 업을 성취했으므로 이 인연 때문에 몸이 무너져 죽은 때에는 선도로 들어서서 천상에 태어난다” 라고 하였다.

악플러는 주로 오프라인에서 사람들과 자유롭게 소통하지 못 하거나 심리적 상처가 있는 사람들 이라고 추측하지만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한다. 왜냐하면 '나는 아니다, 이 정도는 악플이 아니다, 남들도 다 한다' 하면서 습관적으로 비방과 욕설을 내뱉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우리는 익명성을 담보로 한 '거침없는 의견 게재' 인지, 얼굴을 가린 비겁한 취미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으며, 익명성이 보장되는 한, 우리 내면의 어두운 면이 발현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회가 건강해져야 그 구성원도 건강해질 수 있듯이, 이 짧은 인생에서 남을 의식하기보다는 자신의 길을 깨끗하게 가며, 한 사람의 일부분을 확대, 왜곡해서 공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여 자존감으로 연결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는 마인드가 중요할 것이다.

또한 칭찬과 위로, 격려와 같은 따뜻하고 온화한 말 한마디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남을 행복하게 하고, 복과 공덕을 쌓을 수 있는 길이며, 그 말은 결국 나에게 돌아와 자신에게 큰 행복의 씨앗이 됨을 잊지 말자. ❶

운문 소식



▲ 동안거 결제 제사



▲ 육군삼사관학교 수계법회



▲ 법계명성전집 봉정식



▲ 사집반 자비참기도



▲ 명부전 후불 탕화 복장익식

- 11월 11일 동안거 결제 제사와 겨울철 개학 공사가 있었습니다.
- 11월 15일 동안거 포살이 대웅전에서 봉행되었습니다.
- 11월 16일 김장을 하는 날, 운문사 대중과 봉사자들이 함께 김치를 담갔습니다.
- 11월 23일 범공양이 있었습니다.
- 11월 24일 회주스님을 모시고 경주 엑스포 관람 후 부산에서 뮤지컬 '싯타르타' 공연을 보았습니다.
- 11월 26일 도감스님, 화엄반 스님들이 대구 '제1자비의 집 노인무료급식소'에 무료급식봉사를 다녀왔습니다.
- 11월 27일 화엄반 스님들이 경산에 있는 운문유치원을 방문했습니다.
- 11월 28일 저녁예불 후 청풍료에서 차례법문이 있었습니다.
- 11월 29일 ~ 12월 4일 71명의 학인스님들이 언양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으로 호스피스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 12월 3일 회주스님께서 동국대 경주캠퍼스 정각원에서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종강법회를 봉행하였습니다.
- 12월 7일 대자원 졸업법회로 교화부와 화엄반 스님들이 경주에 다녀왔습니다.
- 12월 9일 육군삼사관학교에서 회주스님께서 직접 화랑오계를 전하는 수계법회가 있었습니다. 회주스님 이하 어른스님, 대학원스님, 화엄반 스님 18명이 법회에 참석 하셨습니다.
- 12월 11일 회주스님 구순 및 『법계명성전집』 봉정식이 있었습니다.
- 12월 15일 '오백나한과 함께하는 백일간의 수행' 기도회향이 있었습니다. 대웅전에서 명성 회주스님께서 회향법문을 해주셨습니다.
- 12월 20일 ~ 23일 3박4일 동지휴강이 있었습니다.
- 12월 24일 사교반 스님들이 사중에 남아 팔죽공양을 하였습니다.
- 12월 24일 청풍료에서 겨울철 첫 자자가 있었습니다.
- 12월 25일 겨울철 중간 죽비전달이 있었습니다.
- 12월 26일 ~ 28일 비로전에서 사집반 스님들의 경반 무장무애를 발원하는 '자비 참법기도'가 있었습니다.
- 12월 31일 청풍료에서 송년 율놀이가 있었습니다.
- 비로전에서 새해맞이 철야정진기도가 있었습니다.
- 1월 1일 새해 떡국마지를 올리고 대웅전에서 향수해례를 올렸습니다.
- 1월 2일 부처님 성도재일을 맞아 철야정진이 청풍료와 금당에서 있었습니다.
- 1월 3일 대웅전에서 부처님 성도재일 팔상성도 새벽예불을 올렸습니다.
- 1월 5일 명부전 후불 탕화 점안이 있었습니다. 통도사 올원장 덕문 스님께서 점안해주셨습니다.
- 1월 8일 제8회 한문불전대학원과 제56회 승가대학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 1월 13일 ~ 14일 신입생 시험과 면접갈마가 있을 예정입니다.
- 1월 16일 ~ 2월 28일 겨울철 방학입니다.(43일간)

도와주신 분

- 정해옥 • 부유부동산 • 노기용 • 이유진 • 김진관 • 김형민
- 김수국 • 윤희숙 • 윤경숙 • 이정숙 • 신현섭

※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雲門』誌 발간에 도움을 주실 분은 아래의 온라인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체국 701839-01-000335, 예금주: 운문편집실)

* 주소가 변경된 분은 편집실로 연락 주십시오, ☎ (054)370-7139

운문사 관음전 주련



운문사 관음전 수월관음도(1816년 제작)

대지대비의 상징, 일체 중생들의 소리를 관하여
고통을 건져 주고 즐거움을 주는 보살님

백의관음무설설 白衣觀音無說說
남순동자불문문 南巡童子不聞聞
병상녹양삼제하 瓶上綠楊三際夏
암전취죽시방춘 巖前翠竹十方春

백의 관세음보살님은 말한바 없이 설법하시고
남순동자는 들은 바 없이 들음이로다
꽃병의 푸른 버들가지는 언제나 여름인데
바위 앞 푸른 대나무는 온 세상 봄이로다

일엽홍련재해중 一葉紅蓮在海中
벽파심처현神通 碧波深處現神通
작야보타관자재 昨夜寶陀觀自在
금일강부도량중 今日降赴道場中

한 떨기 붉은 연꽃 바다 가운데 있으니
푸른 파도 깊은 곳에神通으로 나투시네
지난 밤 보타산에서 관자재하시더니
오늘은 이 도량 가운데 강림하셨네

* 「자유기고」에서는 전국 학인스님들의 글을 받습니다.

* 「호거산 운문사」에서는 운문지 독자 후기, 운문지에 관한 에피소드 등 독자의 소리를 기다립니다. 많은 관심과 투고 바랍니다.

* 운문사에서 사리암 기도영험록을 제작합니다. 사리암 나반 존자님 기도를 통해 가피를 얻은 불자님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054)372-8800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교육시스템,
다양한 학인복지 지원의 명실공히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비구니 교육수행도량!
운문사승가대학에서는 2020학년도 신·편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운문사승가대학 신·편입생 모집 공고



운문사 한문불전승가대학원· 보현율원 신입생 모집 공고



- 자 격** 2020년 봄 수계자 및 비구니계 수지한 스님도 가능
- 모 집 인 원** 사미니과 ○○명
- 제 출 서 류** 1. 입학원서(본 승가대학 소정양식)
2. 은사스님 추천서
3. 본인 사미니증(승려증) 사본 및 은사스님 승려증 사본
4. 증명사진(장삼, 만의 착용) 2매(3×4)
5. 준비물 : 만의, 장삼, 사미니증(승려증), 필기도구
- 모 집 기 간**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 14일까지
(사전에 우편 혹은 전화, 직접 방문 접수 가능)
- 전 형 방 법** 시험, 면접
- 예비소집일** 2020년 1월 13일(음력 12월 19일) 오후 4시까지
- 전 형 일 시** 2020년 1월 14일(음력 12월 20일) 오전 7시
- 교 통 편** 운문사 종무소로 문의

운문사승가대학 회주 법계 명성·학장 진광·주지 운산

- 모 집 대 상** 비구니계를 수지한 스님
2020년도 봄 구족계 수계 예정자 포함
통학도 가능함
- 모 집 인 원** ○○명
- 제 출 서 류** 1. 입학원서(본 율원·대학원 소정양식) 2. 수행이력서
3. 승려증 사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
4. 기본교육기관 졸업(예정)증명서 5. 증명사진 2매(3×4)
- 모 집 기 간**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 14일까지 당일 접수도 가능
- 전 형 방 법** 서류심사, 면접
- 준 비 물** 가사, 장삼, 승려증
- 전 형 일 시** 2020년 1월 14일(음력 12월 20일) 오후 2시

운문사한문불전승가대학원장 명성·보현율원 율주 일진·주지 운산

※ 신·편입생 모집공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문의(054-372-8800, 370-7100)와
운문사 홈페이지(www.unmunsa.or.kr)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雲門寺僧伽大學

38368 경북 청도군 운문면 운문사길 264 雲門寺 / 편집부 (054)370-7139 / 종무소 (054)370-7100 / <http://www.unmunsa.or.kr>

[운문·계간] 겨울호·통권 제151호·2020년 1월 10일 발행·등록 1995년 3월 29일·등록번호 경북 바-01008 / 발행처·운문사승가대학 / 발행인·명성(전임호)
고문·원범 / 편집·운문사승가대학 편집부 / 편집장·법성 / 편집위원·영림, 자우 / 사진·편집부 / 표지사진·편집부(악아계若耶溪) / 삽화·도영 / 편집디자인·
Design MARU(디자인 마루) (053)426-3395